

가령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사적을 아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 밖의 사항은 거의 모른다. 이와 같은 현재의 지식계급의 지식으로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해서 나는 일찍이 황해도와 충청남도에 봉직했을 때, 각 수천 원을 들여 『일본외사(日本外史)』를 구입해 지방의 유림계급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적이 있다. 적어도 국사의 개념이라도 체득시키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사 관념 보충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요컨대 반도 민중의 국사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이해는 아직 전도 요원하다. 이런 상태로는 내선일체의 의미의 철저화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시국과 조선이 떠맡은 임무는 언제까지 이처럼 이해 부족이라는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앞서 논의한 윤리적 기초 위에 서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조선 민중에게 호소하여 그 이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본 내지인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협력을 바라는 바이다. 내선일체는 쌍방의 이해, 신념과 신뢰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출전 : 鄭橋源, 「內鮮一體の倫理的意義」, 『朝鮮』 293號, 1939년 10월, 33~37쪽〉

## 2) 내선일체의 윤리적 귀결

백마강은 유구한 자태로 흘러 내린다. 그 강 연안에 부소산성지(扶蘇山城趾)를 거점해서 부여의 산하는 먼 옛날부터의 풍부한 사실(史實)을 잠비(潛秘)하고 고요히, 평화롭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여신궁어조영(扶餘神宮御造營)에 봉사하는 근로대의 성초(聖鏹)는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함께 존귀하게 빛난다.

생(生)을 황국(皇國)에서 받은 자라면 이 땅에 가서 누구든지 내선의 깊이 맺은 줄을 더 굳게 맺고져 함을 볼 것이다.

사변 진전에 따라 내선일체는 논의의 시대를 지나서 이속고,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 농촌의 순박한 농민까지, 다투어 국방헌금을 한다. 출정군인을 보낸 집의 전답을 공동경작을 한다. 진심으로 출정병사를 환송영하는 등 전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의 출현이라고 보겠다.

원래 내선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제창이 있는데, 동근동조적(同根同祖的) 사실은 그대로 엄존해 있다. 다만 어떤 시대에 있는 사정으로서, 상당히 오랜 사이에, 소격(疏隔)있기 때문에 꼭 전연 다른 이원적 존재인 것 같이 보이는 점이 있으나, 그 원천을 올리캔다면 결국 원(元) 줄거리에 귀착할 것이다.

이것을 사실(史實)에 비취 보건대 먼 신대(神代)는 고만 두드래도, 역사시대 이강(以降)으로 임나(任那), 백제, 고구려, 신라 등과 일본과의 관계는 때로 일진일퇴가 있었는데, 지금의 내지가 아직 완전히 통일을 보지 않은 이전에 있어서 반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일즉이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은 유액보호

109) 임진왜란.

(誘掖保護)의 손을 뚫으며 혹은 물자를 준다든지 혹은 주둔시키든지 혹은 관직을 설치하고 또 때로는 응징을 가하며 문화의 교류를 계획한 것 등 참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事實)이다. 이들 많은 사실 중에는 이해관계라든지 국제관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윤리적 해석이 적지 않다.

즉 당시의 야마토(大和)조정이 반도에 대한 시찰방침은 전혀 팔굉일우의 대정신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그 가운데도 백제 말기에 있는 백제구원의 사실 같은 것, 사이메이(齊明)천황이 67의 어(御)고령으로서, 그 우에 어(御)여성의 어(御)몸으로서 어(御) 손수 도움으로부터 쓰쿠시(築紫)까지 대□(大□)을 드시고 7개월 넘어 행재소(行在所)에서 멀리 반도의 군려(軍旅)를 보시옵다가 그 땅에서 붕어하시기가 어진취(御盡瘁)하신 것과 덴지(天智)천황이 이런 대고(大故)에 조우(遭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구원의 손을 머물지 않고 백제의 최후까지 철저하게 원호하시옵신 것 그리고 당시 반도에 파견된 일본군의 장령들이 반도에서 도라갈 때, 일즉이 우군(友軍)이든 백제 사람들의 신변을 생각해서 당라(唐羅)에 복(服)하지 않는 2천 수백인의 사람들을 일본에 대려간 사실 그 백제 사람이 친척고우(親戚故友)와 분묘를 버리기 참아 어려워서 비통한 말을 남기며 단연 일본군을 따라 내지에 이주한 것, 그들이주자에 대해서 조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리가 있고 또 제각기 토지 관직 등을 주고 곧 상호 간의 혼인이 행하게 되고 그 자손이 내지에 있어서 점차 번영하고 역사상 유명한 인재를 배출한 일 등 오히려 금일까지 기억을 새롭게 한다.

이런 사실(史實) 이런 아름다운 예는 고금동서의 역사에 아직 보지 못한 일로 이것은 내선관계의 윤리적 해석에 의하여 비로소 양해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 고구려의 승 혜자법사(惠慈法師)가 성덕태자(聖德太子)께 불전(佛典)의 어(御)교수를 가르치다가 일본재류 20년 후 늙어서 그 고향에 도라왔으나 7년 후, 성덕태자 그 흉거를 두고 어(御)비통해 하시옵셨다고 듯자왔을 때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요컨대 중고(中古)까지의 내선관계는 진실로 일원적이며, 일체인 것은 전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금일 남선인(南鮮人) 간의 씨명 등이 현저하게 상위(相違)하므로 아주 혈속적(血續的) 교섭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중고(中古) 이전을 본다면 양자 거반 동일했다. 예를 든다면 소아마자(蘇我馬子)가 일본 최초의 사원(寺院)으로서 세운, 법흥사(法興社) 공사 때문에 백제에서 불른, 공장(工匠), 즉 태량(太良), 말태(末太), 문가고자(文賈古子)의 성명 같은 것 또 와공(瓦工)의 마내부노(麻奈父奴)라든가 성명왕시대(聖明王時代) 일본에 사자로 간 기신내솔미마초(紀臣奈率彌麻抄), 물부시덕마가모(物部施德麻噶牟), 아내부아사비다(阿内部阿斯比多)와 같은 또 백제 멸망 때 장전귀실복신(將電鬼室福信)같은 어느 것이나 현재 조선식의 성 다과는 모다 다른 오히려 일본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원천을 밟아 올라가면 내선관계는 원래 문화적 교류가 있을 뿐 아니라 인종이든 어계(語系)든 같고 한자음역 방법도 같다. 다시 말하면 같은 책으로 된 것임으로 대체로 표음이 된다든지 같은 씨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같이 내선인 양자의 씨명이 현저하게 달르게 된 것은 그 후의 변화이다.

또 풍속, 습관 내지 생활양식 같은 것도 옛날엔 같았다. 예컨대 나라제실박물관(奈良帝室博物館) 진열품을 보드래도 거기엔 현재 조선 가정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동(眞銅)의 '사발' 그밖에 유사한 품물

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에서 배관(拜觀)간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나라(奈良)시대까지는 기물(器物)까지 대개로 같았다. 또 소학교 교과서 등에 나오는 관원도진(管原道眞)의 의관동대(衣冠東帶)의 그림을 보더라도 관(冠)으로부터 버선까지 거반 지금의 조선 예복 뭉치대로였다.

이렇게 원래는 같았는데 도중에서 길을 달리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내선일체는 옛날에 의 복귀다.

잘못하면 지금 사람들은 내선일체라는 것을 시세나 행정의 방편이라 말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바엔 내선일체는 조선통치의 최고이상인 동시에 실로 내선 양자의 윤리적 귀결이라 생각한다. (끝)

〈출전 : 鄭僑源 「內鮮一體의倫理的 歸結」, 『三千里』 第13卷 第1號, 1940년 1월, 74~76쪽〉

## 23. 최남선(崔南善)

### 1) 일본의 신앙문화와 조선

조선사편수회위원 및 촉탁 최남선

본 강연은 금년(1935년) 1월 18일 본부(本府)에서 도참여관(道參與官) 회의에 즈음해서 있었던 강연 속기이다.

저는 작년 겨울부터 정월에 걸쳐서 신사참배의 여행을 계속해, 일본의 신앙문화, 즉 신도(神道)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감사(感謝)에 젖어 왔습니다. 갈 때는 마침 만주파견군이 교체할 때를 만나,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의 몇 군데에서 그 부대의 움직임을 보았으나, 출발하는 부대도 돌아오는 부대도, 모두 먼저 그곳의 신사를 참배하거나, 또는 무운(武運)을 기원하면서, 혹은 무사귀환의 보고를 하며, 거기에다가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일본군대는 신과 함께 있다는 실감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참배한 수십 군데의 대표적인 신사의 대부분이, 무신(武神)을 주로 하거나 또는 무신과 무슨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과, 또 어느 신사에 참배 해 보아도 보물전(寶物殿)에는 신도(神刀)라거나 갑옷투구가 받들어 봉납되고 회마당(繪馬堂)에는 역시 군사관계의 봉납물(奉納物)이 다른 어떤 종류의 것보다 우세를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군대는 신에 의한 특질을 이제 더욱 확실히 인식시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큐슈(九州)의 하코자키궁(筥崎宮)에는 그곳의 신부(神符)를 얻어서, 청일전쟁에 출정한 한 군인이 자신을 지켜서 무사하게 개선하게 해 준 그 신부를, 그 후에 때때로 전쟁에 출정하는 몇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것이 무엇인가의 가호(加護)를 주어서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으므로 그 고마운 사연을 적어서

그 신사에 봉납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신에게 전송을 받아 출진(出陣)하고, 신에게 가호를 받아 종군하며, 신이 마중해 개선하는 것이 일본군대입니다. 또 신이 대체로 무용(武勇)과 충의(忠義)의 화신입니다. 일본군대의 강함은 정신적인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의 강함이란 바로 신 그 자체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지키고,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군대뿐만 아닌 것은 물론이며, 일본에서는 어떤 생활현상도 그 이면에 신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꾼의 신념이 치열한 것은 오히려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에서 복덕(福德)이나 이재(理財)의 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나리신(稻荷神)<sup>110</sup>입니다. 도쿠가와(德川)시대의 에도(江戸) 속담에는, ‘가계의 이나리에 개똥’이라고 할 만큼, 장사가 번창하는 곳에는 엄청나게 받드는 신이지만, 교토에는 관폐대사(官幣大社)<sup>111</sup>인 이나리신사가 있어서, 옛날에는 위로는 조정 고관부터 아래로는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숭배를 받는 신사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배를 해서 그 규모가 큰 것과 참배인이 종일 끊이지 않는 상황이 예상 이상인 것을 보고 깜작 놀랐던 것입니다.

지난번 간사이(關西)지방의 풍해로 심하게 피해를 입어 늙은 거목만으로도 5,000그루 이상이 쓰러졌으나 장사꾼도 신위(神威)를 두려워하여 사주지 않아서, 아무래도 급히 정리할 방법이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공경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사의 본전(本殿)의 안 쪽 산에는 7군데 정도의 신적(神跡)이 있다고 하여 산 순례라고 하는 것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온 산의 몇 갈래의 참배 길에는 아주 오랫동안 신사 앞에 세운 기둥문(鳥居)이 뻣뻣하게 서 있어서 완전히 굴(터널)을 이루고, 속되게 천 개 기둥 문이라고 일컬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의 하나하나가 열렬한 신앙의 효험이 없지 않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또 교토에는 이 밖에도 복덕의 신을 모시는 커다란 신사가 여럿 있는데, 거기에는 야사카(八坂)신사, 마츠오(松尾)신사와 같은 조선관계의 신령이 많은 것은 흥미 있는 일입니다만, 그 모두가 언제나 다른 신사와 비교해서 매우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토 뿐만 아니라, 오사카·동경이라는 상업지에다가 그 상업중심지에는 어디를 가나 특히 신앙이 치열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장사꾼을 지키는 것은 주판이나 금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신(神)입니다. 신앙심 - 신의 가호가 있음으로써 보통 이상의 끈기와 부지런함이 나와서 7전8기하는 용기도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신에 대한 신앙심의 성실함은 특정 계층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세(伊勢)의 대묘(大廟)를 참배하게 되었으나, 때는 11월 말 가까이로, 말하자면 시즌이 자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참배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새삼스럽게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궁(內宮)에도 외궁(外宮)에도 정성을 다 하는 참배자가 천백군(千百群)을 이루고, 각자의 얼굴은 고마운 감사의 빛이 충만 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스스로 환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외궁에 참배하고 있을 때, 한 스님이 가사(袈裟)옷을 벗고 공손히 손뼉을 치며 소리 높게 축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나, 점점 감정이 북 바치는 듯 점점 울음소리가 되어,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 양 볼을 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110) 오곡을 관장하는 신.

111) 황실을 모시는 신사.

있었으며, 참으로 대단한 감격에 젖었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에는 도속(道俗)도 범성(凡聖)도 없으며 모두 하나로 마찬가지로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선달그믐 날에 큐슈에 건너가서, 5일 간에 걸쳐 미야자키(宮崎)·다마야마(玉山)·가고시마(鹿兒島)·기리시마(霧島)·우사하치만(宇佐八幡) 등의 대(大)신사를 거의 달리듯이 참배했으나 어디에 가도 설날 참배로 기차는 만원이요, 신사 앞은 참배인들이 도열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사하치만에는 닛포(日豊) 본선으로부터 특히 참궁(參宮)철도가 갈라져 다니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구실을 못하여, 몇 개 노선 버스가 끊임없이 왕복을 하고 있었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바쁘게 참배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참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몇 명씩의 자녀들을 예쁘게 새 옷으로 갈아 입혀 기쁨에 넘치는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벌써 1년의 행복이 풍요롭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이, 가고시마현 이주인(伊集院) 마을의 저 유명한 조선인 부락을 찾아, 지금으로서는 천하에 유일하다고 해야 할, 단군(檀君)을 모시고 있는 다마야마신사(玉山神社)를 참배했으나, 박(朴)·김(金)·정(鄭)·심(沈)·변(卞)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오래고 또 새로운 동포들이 거의 줄을 짓고 신사참배를 하고 있으며, 구원(久遠)의 조령(祖靈)에게 감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광경을 접하고는 나도 모르게 감읍(感泣)에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그들 가정에는 집집마다 단군이 모셔지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참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과연 신의 나라에 살게 해 주고 있다는 고마운 은혜라는 것을 깊이 감탄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마음 든든한 보람이 있는 생활에 운택함과 위로와 바람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외래(外來)부락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락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도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러한 신의 후광에 살 수 있는 것은, 그중에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일본의 신도(神道)는 결코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본에 포용되고 있는 모든 민초가 함께 우러러 받드는 빛, 은혜로움을 받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시나노(信濃)의 수와(諏訪)신사에 참배하고, 한층 더 그 느낌을 새로이 한 것입니다만, 일본 고래의 신들과 다른 계통에 속하는 신이라도 혹은 또 원래는 일본 권력에 반항의 태도를 취한 자일지라도, 일단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본의 국가와 일체 관계를 하려고 하면 그 인민들도 그러한 신(神) 또한 일본국의 그것으로 아무런 구별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입장과 위세가 전 보다도 더하여 빛나게 되는 것은 역사상 많은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와신사의 제신(祭神)은 천손(天孫)민족의 세력이 동쪽으로 뻗으면서, 이즈모(出雲)지방에서 가장 완강한 저항을 시도한 다케미나카타노신(建御名方神)이지만, 이 신도 홀연히 깨닫고 귀복(歸服)의 정성을 다한 후에는 조정의 대우는 보통을 넘고, 죽어서는 영험이 있는 신령이 되어, 황실로부터 깊은 숭경(崇敬)을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는 경내(境內) 네 곳에, 말사(末社) 90여 군데,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분사(分社)의 수가 약 1만을 헤아리며 일본 제일의 대군신(大軍神)으로서, 무인(武人)들의 존숭(尊崇)이 가장 두터운 모습인 것입니다. 수와신사가 그렇고, 그 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의 사격(社格)이 높고 신덕(神德)이 빛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억(抑抑).

무릇 일본이라는 나라는 큐슈의 한 귀퉁이에 내리신 천손(天孫)인 한 세력이 점점, 이른바 아시하라노 나카츠 즈이호(葦原中津瑞穗)의 나라를 향해, 오랫동안의 연대에 걸쳐, 많은 씨족을 평정·귀속시켜

만들어 낸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코 위력으로 일방적인 것도, 섬멸(殲滅) 본위의 것도 아니며, 참다운 방향으로 정복된 종족들에게 새로운 빛과 힘을 주어서, 백성도 신도 함께 하는 곳을 얻게 하는 덕정(德政)을 첫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전국에 있는 신들은 꽤 많습디다만, 그 근본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은 그 옛날 하나의 씨족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본 신도(神道)가 되는 커다란 도가니 속에 포용되어서, 동일한 위치와 위덕(威德)을 얻음으로서, 일본 국가는 오늘날과 같이 혼연(渾然)·애연(爨然)한 대 결성을 이룬 것입니다.

도쿄 근처, 사이타마현(埼玉縣)의 이루마군(入間郡)에 고구려로부터의 이주민에 의해 지켜오고, 그 조상을 모신 고려신사(高麗神社)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요즘 복덕의 신이라는 영험이 뛰어나다고 해서, 갑자기 일반사람들의 숭앙이 더해져, 현재 당대의 명사들에 의해 봉찬회(奉贊會)가 설립되어서, 수십만 원의 확장자금이 모집될 정도입니다. 일본에 접수(攝收)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도 편안하게 있게 되는 것에, 신의 나라인 일본의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참으로 철저한 생활 일반을 볼 수가 있고, 커다란 융화와 동화의 실적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점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부터의 생활원리를 생각하는 데 참으로 중대한 하나의 시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본과 조선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훑어 볼 때, 대강 두개의 세력이 서로 다투며, 여러 가지 파문을 그려 내려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원심적인 경향의 것, 즉 반발세력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것을 억제하면서 떨어지게 하지 않겠다, 아니, 적극적으로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구심적인 경향의 것으로, 즉 친화세력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과 조선 2000년의 역사는 요컨대 이러한 두 세력의 흥망성세의 기록으로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발원리의 작용은 그것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정치적·외교적인데 대해, 친화원리는 그 반대인 항구적인 것, 전면적인 것, 정신적·신념적인 것으로서 상대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관계(關係)시대의 대세에 의해서, 때때로 서로 배반하여 헤어지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어떤 근본적인 동기에 의해, 결국은 끌어당겨 뺏어지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세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대체로 반발세력은 동양전체의 기압배치에 의해, 풍운(風雲)의 변화로부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결국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친화세력은 종족이 서로 가깝고, 언어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러나 일체의 생활문화를 약속하는 바의 근본신념이 완전히 같아진다고 하는, 즉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신념의 일치, 정신생활의 동원(同源)관계입니다. 종족이라거나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 복합관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근원을 같이 하는 것도, 후세에 가면 전혀 다른 것으로 되어 버리지만, 문화의 본질, 신념의 본질에 이르러서는 때로는 나타나거나, 또 때로는 숨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흔히 그 근본생명, 지도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시공(時空) 양쪽을 초월한 통합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이, 과거에 몇 차례의 분리와 화합을 되풀이하여, 끝내 오늘날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또 현재나 장래에 여러 가지 난관과 고통을 내포하면서, 또 융화와 친화의 가능성을 예상시키는 것도,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문화의 본질적·본원적(本源的)인 일치가 확실한 사실인 한, 이 줄거리를 더듬어 이러한 이치가 순환하는 한, 훌륭한 친화

관계가 성립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문화내용이나 생활원리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찰되어 왔습니다만, 고대에 있어서 문화사실이나 민족심리의 종합적인 표현인 건국설화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전에 의하면, 맨 먼저 타카마가하라(高天原)에 신들이 모여서 인간의 고역(苦厄)을 구제하기 위해, 귀중한 자식을 인간에게 보내시니, 그 자식은 세력이 큰 하늘의 일문(一門)을 거느리고 신성지(神聖地)로 선택 받은 어떤 산에 내려와서, 동쪽에 곡식이 잘 영그는 아름다운 땅을 구해, 드디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제사중심의 정치, 즉 정사(政事, 제사)를 시작했으나, 그 궁터가 된 곳은 '가시하라(檜原)' 혹은 그 유사어를 써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손이이(天孫邇邇) 예존(藝尊)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진무(神武)천황의 사적(事蹟)은 가장 잘 이 취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의 발로(發露)에 의한 나라 창조의 전설은, 조선의 고대 여러 국민에게도 빠짐없이 통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제일 오래되고 제일 정비된 한 예로서는, 제일 북쪽인 부여라고 하는 나라의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여의 나라에는 원래 해부루(解夫婁)라고 하는 나이 많은 왕과 그 아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으나. 어느 때 하늘로부터 알림이 있어서 말하기를 "네 국토는 우리 자손이 왕이 될 곳이므로,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아름다운 땅이 있어서 오곡도 잘 영글고, 도읍으로서 적당하리라"라고 해서,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곳은 가섭원(迦葉原)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나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나 기타 일본고전과 앞뒤가 맞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강의 줄거리가 하늘에서 내려 온 귀한 분에 의해 인간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대충의 전설에서 널리 세계 민족 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별로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나, 일본과 조선과의 일치는, 전체적으로나 세목(細目)에 걸쳐서 참으로 부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고유명사, 도읍 이름을 '가시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거나 암합(暗合)이라고 가볍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하라'라는 이름의 내력을 언어로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종래의 해석에서는, 떡갈나무가 우거진 원산지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진무천황의 우네비야마(畝傍山)<sup>112)</sup> 뿐이었다면, 이것이 무난할지 모르지만, 같은 일본에서도, 고대의 제사를 지내는 영장(靈長)이나, 사회력의 중심지에는 대강 '카사사노미사키(笠狭崎)<sup>113)</sup> · 카사누히노무라(笠縫邑)'와 같이 '카시' 또는 그 유사한 명칭이 붙으며, 또 조선반도에서 만주방면에 걸쳐서, 고대의 국도(國都)에는 모두 이러한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가시하라'라는 명칭이, 결코 토지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나라 한 부분의 특정 칭호가 아니며, 사실은 고대의 동방세계에 걸쳐 보편적인 정치규범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

112) 신화시대에 두 산이 다투는 전설.

113) 신화시대에 니니기노미코토가 강림 후 머무른 곳.

어였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조선말이나 민족의 실제나,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카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신에 관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동방의 공통어였던, ‘카시하라’는 ‘마쓰리(祭祀)’를 지내는 장소의 뜻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게 됩니다. 이른바 제정일치(祭政一致)의 고대에, 종교적인 성지가 그대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는 사실이 이 한 마디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일본의 옛말에 ‘쿠시’ 또는 ‘카시코’가 영이(靈異)<sup>114)</sup>함을 나타내어서, 이런 이름을 갖는 신이 적지 않는 사유도 살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극히 알기 쉬운 한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만, 이와 같은 부합이나 일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다 많게는 신념적인 발로라고 인정됩니다. 고대역사의 전면(全面)에 걸쳐서 널리 볼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신앙과 신념에서는, 자잘하고 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은 과거에 파묻혀서 죽은 사실이 아니며, 잘 검토해 보면, 현재에도 두 민족의 생활원리로서 깊이 배어 있고, 또 강하게 살아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고신도(古神道)와 조선의 현재민속인 민간신앙의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면 얼마나 양자의 유사관계가, 근본적인지가 명백해 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어떻게 하든 그 근본 계기는 정신방면에 있으며, 서로의 기분을 고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굳이 이해관계·권력관계가 되기 쉬운, 사람의 계략에서 떠나서, 이른바 곧고 밝은 마음이 열린다면, 오직 신의 길에 의해서만 두 민족의 친화원리는 강대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한 면인 반발원리가 억제된다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것 또한 조선을 귀감(龜鑑)으로 하는(또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는) 전체 동방의 큰 경륜의 근간이 되는 보편타당한 통일원리가 될 것이라고 우고(愚考)하는 바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카네(赤根) 속기사무소 속기)

〈출전 : 崔南善, 『日本の信仰文化と朝鮮』, 『文教の朝鮮』 第115號, 京城: 朝鮮教育會, 1935년 3월, 94~101쪽〉

## 24. 현영섭(玄永燮)

### 1) 정치론의 한 장면 - 문학자의 입장에서

문학사 현영섭

1.

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생기는 동시에 언어에서도 생긴다. 따라서 각 국의 문학사를 읽어보면 그

114) 대단히 이상한 것. 영묘(靈妙).



국어의 발달에 대해 논하고 있는 장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개라는 말의 내용은 도그·센·폰트·치엔·개라는 각 단어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폭스테리어도 셰퍼드도 조선의 농민은 모두 개라고 부른다.

말은 생활이나 사상(事象)에 종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변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관념과도 같은 물질적 소산이면서도 물질이나 생활을 규정하고 창작하는 것이다. 관념은 하나의 사실이자 힘이다. 논문의 제목이 있으면, 소설의 제목이 있으면 논문이나 소설은 이미 씌어져 있다. 우리는 영어를 배움으로써 서양의 자본주의·유물론을 수입하고 어떤 이는 반자본주의를 수입했다. “영어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아들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개도 천차만별이 있어서 귀부인이 수만 원의 개를 애완견으로 기르고 있다는 것은 영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째서 좌익들이 어학에 능통한가?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어째서 모든 교과서가 양서였는가? 말은 사상이고 사상은 생활에 앞서기 때문이다.

독자들이여. 내 개인적인 역사를 들어라. 나는 조선인의 생활에서의 다양한 폐해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 형식적 유교가 일체를 지배하고 있는 조선,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조선에 반항하게 된 것은 ‘국어’<sup>115)</sup>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말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 되어 조선의 가족제도에 반항했다. 다음으로 영어를 배워 조선인의 계급제도에 반항했다. 프랑스어를 배워 조선인의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에 반항했다. 내 어학은 나로 하여금 일체를 부정하는 니힐리즘에 도달케 했다. 나아말로 어학병을 앓은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고 싶다. 바쿠닌을 읽기 위한 프랑스어나 레닌을 읽기 위한 러시아어를 버린다. 개인주의의 동굴을 파는 영어를 버린다. 나는 가족제도에 의해 인간을 전체와 융합하는 것을 방해한 한문을 배척한다. 첩과 향락을 즐기는 데 편리했던 조선어의 절멸을 바란다. 나는 생명의 원리를 파악한 말로서 일본어를 사랑한다. 영어에도 미가 있다. 셸리의 시를 읽고 말의 미를 맞보지 못한 자는 금전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블레의 인간성은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다. 나는 레싱의 독일어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일본어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조선어로 사색하지 않고 일본어로 사색한다. 자신이 매일 그것에 의해 생활하는 말, 그것은 국어다. 내 일본어는 서툴다. 순수한 일본어가 아니다. 조선어나 영어나 프랑스어가 번역되어 있는 일본어인지도 모르겠다. 규슈(九州)나 도호쿠(東北) 지방의 일본어처럼 사투리로서의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임에는 분명하다. 나는 고전어로서 조선어를 배운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조선인 인텔리겐차는 일본어로 생각하고 있다. 왜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에서 어려운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일까? 어째서 총독부에서는 기관 잡지로서의 언문 『조선』을 폐지하면서 조선문 신문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일까? 과도기로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조선어가 현재 이상 발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상, 그 축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먼저 학교에서 조선어를 제외시키고 조선문 신문의 몇 단을 국문으로 하도록 명령하라. 국어장려시험제도를 만들어 □□ 일본의 고전이나 말에 정통한 조선인의 생활을 일본 내지인의 생활과 대등하게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본 내지인과 결혼해서 국어를 상용하는 조선인의 생활

---

115) 일본어.

을 특별히 보호하라.

우리는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쓰고 일본어를 읽고 일본정신을 그날의 양식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조선어 상용자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우리는 빈대나 고추를 싫어하듯 조선어를 싫어한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데 죽음에 가까운, 허무와 비슷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연상하게 된다. 만약 조선이라는 토지가 고추와 온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나는 온돌(オンドル)과 고추(ゴチヨ)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훌륭한 일본어로서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 관념은 그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나는 조선이라는 모태에서 출발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모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가 폐지되어 이 토지가 일본 내지처럼 된다면 이 토지가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라는 대지를 사랑하면서도 나는 조선적 일체에서 절연하고 싶은 것이다. 조선어를 사수한다는 조선인 문학자들 못지않게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저 무지한 농민들이 자력갱생하는 것을 바라마지 않기에.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조선인 아동이나 부인이 학대받지 않고 육성하여 명랑한 인간이 되고 여성이 되어 따뜻하고 살아있는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가 폐지되어 감정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본어가 자신들의 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조선어 폐지를 외치는 것은 다름 아닌 국어 장려의 필요를 외치는 것이다. 또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 불행에서 탈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 2.

나는 일본인이 되고 싶다. 조선청년 중에서 좌경화된 자는 일본 내지에서 공부한 자가 많다. 아메리카나 유럽에 유학한 조선청년은 그다지 좌경화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 내지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조선인 생활의 빈약함을 깨닫고 그 원인을 사회적 환경이나 외래 세력에 돌리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의 불행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청년들은 일본 내지문화의 발달, 일본정신의 숭고함에 놀라 찬미하면서 그 문화·정신에 자신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에서 그들이 좌경화되는 것이다. 조선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가 있는 한 철저한 내선융화(內鮮融和)는 어렵다. 좌경화된 조선청년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본 내지의 좌익과 사이 좋게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혈연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또 깊이 제후하지 않으려는 자도 있는데, 고참(古參)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좌경분자는 배일적(排日的) 기분이 농후하지만, 한문 편지나 조선어 편지보다 국문 편지를 잘 쓸 수 있다는 젊은 조선인 주의자는 친일적이다. 이 새로운 조선인 주의자도 조선어가 사라지더라도 답답해하지 않는다.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좋아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옛날에 나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나는 계급적 사상을 청산하고 일본의 공민(公民)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도 내가 매일 고민하는 것은 내가 조선인이라는 특수 관념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하고 싶다. 내가 민족주의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것은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의 디퍼런스(difference) 때문이다. 디스크리미네이션(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차별이 아니다. 차이다. 일본과 조선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할 정도로 나는 유치하지 않다. 조선인 관리나 사무원이나 직공이 일본 내지인들보다 급료나 봉급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지한 일은 없다. 그것은 생활의 차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생활의 차이를 파괴하고 일본 내지인의 생활양식을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삼고, 국어를 상용하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조선인 청년이 있다. 조선인은 음험하고 시의심이 강하다는 전통적 관념을 지양하고 이러한 조선인의 생장을 돕는 것은 일본인 인텔리겐차의 의무일 것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 조선인 청년은 고투를 거쳐 최후의 입장으로서는 조선 내지화의 정신에 불타고 있다. 그들은 일본어로 생각하는 것처럼, 일체의 이상이 일본인의 그것과 공통적이다. 그들은 만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련의 월경을 불쾌하게 여긴다. 그들은 요시오카(吉岡)<sup>116)</sup>가 졌을 때 울었다. 손기정 군이 마라톤에서 이긴 것은 일본 내지문화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신궁(神宮)이나 신사(神社)에 참배하고 자신들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내선융화가 아니라 내선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가키(宇垣) 전 총독이 말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능한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나는 말을 동일하게 하라고 외친다. 이는 예술적인 입장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조선인의 감정도 사상도 일본 내지인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생활양식도 유사해질 것이다. 조선어장려시험을 폐지하고 국어장려시험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만엽집(萬葉集)』,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조선청년들이 전부 정독함으로써 일본사상은 조선인의 본능적 사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신을 체득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일본인·조선인의 차이는 사라질 것이다.

조선어의 존재를 허용하는 한 조선인적 사상 경향은 존재한다. 먼저 조선어를 폐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조선인에게 일본인적 생활양식을 용감하게 부여함으로써 조선인의 감정을 일본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조선어를 폐지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를 폐지하고 소학교·중학교로 개칭하고, 김정자(金靜子)를 ‘김세이시’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시즈코’라고 읽을 필요가 있다. 조선인의 명칭을 일본인처럼 고칠 필요는 없으나 굳이 구별해서 읽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어를 폐지함으로써 일체의 조선문 출판물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조선에 빈민이 많은 한 조선에도 일본 내지에서 허가되어 있는 무산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운동을 국어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조선인을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일본국민으로 만듦으로써 일본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와 같은 일본·조선의 생활 차이는 영원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소멸이 일본인·조선인의 공통 이상이다. 거기에는 말을 동일하게 해서 감정적 융합을 도모하고, 다음으로 일본인·조선인에 대해 출발의 평등, 사회의 균등, 공평한 경쟁을 부여하고, 자연적 불평등을 남겨야 한다.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은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연적·인위적

116) 요시오카 다카요시(吉岡隆徳, 1909~1984) : 육상 단거리 선수로 1932년 LA올림픽 때 동양인 최초로 100m 6위에 입상, 베를린 올림픽 때는 큰 기대를 받고 출전했으나 중압감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함.

불평등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현재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 인위적 불평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차이가 오래 유지되면 인위적인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부자연적 불평등이 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사물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차이가 싫다. 하루라도 빨리 내선(內鮮)이라는 차이가 사라지길 바란다. 내선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경기현인(京畿縣人)·평안현인이라는 명칭만 남게 되길 바란다. 의회에 100명 정도의 조선 대표 의원이 나가야 한다.

조선어를 폐지하라. 국어로 사물을 생각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먼저 일본과 조선의 생활양식을 동일하게 하라. 일본·조선 결혼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선인의 급료를 서서히 증가시키라. 혹은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만 내선일체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8월 18일)

〈출전 : 玄永燮 「政治論の一齣—文學者の立場から」, 『朝鮮及滿洲』 第346號, 1936년 9월, 44~46쪽〉

## 2) 비상시국과 조선인의 각오

문학사 현영섭

동정으로는 안 된다. 나타나엘이여,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앙드레 지드

### 1.

펄 벅 여사의 『대지』가 영화화되면서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가 되었고 <장군 새벽에 죽다>도 상영 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군벌에 의한 농민의 착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의 군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폭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문제의 전문가에 의해 우리는 북중국 농민(자작농)의 수입이 1년에 90원으로 세금, 소작료, 기타가 45원 내지 60원으로 공핍이 극에 달했고 사천성(四川省)의 농민들이 서로의 고기를(인육-역자)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당은 중국의 농민의 공핍을 구제하지 않는다. 농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할 중국공산당도 러시아의 탁선(託宣)에 의해 추악한 타협을 하고 가장 잔인한 부르주아 정당 국민당과 재혼을 하고 말았다.

아아, 중국 4억 대중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국민당이 아니라는 것, 공산당이 아니라는 것, 지방 군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좌익 중국인 학생은 마오쩌둥(毛澤東)이나 주덕(朱德)의 홍군 간부의 우경화에 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중국 정치 표면에서 춤추고 있는 배우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최후에 남아 있는 등장자는 젊은 일본이다. 구시대의 리버럴리즘도 아니다. 혹은 일당 독재주의에 의한 부르주아도 아니다. 거국일체(舉國一

體)가 된 정의의 일본이다. 아시아에 광명을 비추고 동아를 재건하고 백색·적색의 침략주의를 몰아내 중국 대중을 구원하는 것은 신일본이다.

과거 일본은 옳았다.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은 국운을 걸고 동양 민족들을 백색 제국주의의 독아(毒牙)에서 벗어나게 했다. 차르의 정치를 증오하는 각국의 정의의 지사들이 얼마나 일본의 행동을 찬미했던가. 우리는 일본의 영웅적·자기희생적 행위를 회고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 이래 중국은 일본을 경멸하고 그 결과 유럽 열강의 헤게모니 속에서 밤낮으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의 진짜 적은 유럽 제국주의·자본주의 및 스탈린주의임을 모르고 선린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중국의 인식부족으로, 그 원인의 하나는 일본이 중국에 대한 문화운동을 중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있으리라. 일본 국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중국인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북지나사변의 책임은 모두 중국 측에 있지만 우리도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

일본인은 도저히 구미인과 같이 이민족을 통치할 수 없는 인종이다. 국체(國體)라는 말이 어색하다면 일본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야마토 다마시(大和魂)<sup>117)</sup>라 할 수도 있고 일본 국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인은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다. 적에게 □을 보낸 것이 누구였던가. 고야산(高野山)에 오르면 '적·아군 공양비(敵味方供養碑)'가 있지 않은가. 이번엔 □□에서도 황군(皇軍)은 적장을 무덤에 묻어주지 않았던가. 또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의연금을 내기도 한다. 일본인 정도로 찬연한 인류애를 지닌 자는 없다. 모라에스<sup>118)</sup>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일본인만큼 서로 사랑하는 인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사해의 나라들은 모두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찌 풍파가 일어나겠는가”

세계에 절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일본의 이상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북중국에 일본이 파병한 것은 결코 중국 영토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한병합이 합의에 의한 병합이고 만주국의 독립도 모두 도의국가(道義國家) 일본의 사해동포주의였다. 돈을 벌기 위해 조선이나 만주국에 오는 자가 한두 명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본이 지닌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고, 조선인이나 만주인을 빈곤과 착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일본의 이상이었다.

산둥성(山東省)이나 허베이성(河北省)의 인구밀도는 일본 내지인구의 밀도보다 크다. 우리는 이 비참한 농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 농민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양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넓은 토지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는 남진론자(南進論者)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한다. 우리 일본인이 선두에서 서서 중국인이나 만주인·인도인을 뒤에 세워 전 세계로 웅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위대한 이상 실천의 전제로 북중국에서의 일본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북중국의 산업-면·석탄·양모·□ 등-을 크게 개발해 일·독 블록의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주국의 치안·국방을 위해서는 북중국에서의 사변 이전의 상태는 철저히 개조되었어야 했다. 생각건대 북지사변(北支事變)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이 항일이라는

117) 일본 혼.

118) 모라에스(Wenceslau José de Sousa de Moraes, 1854-1929) : 포르투갈 출신의 외교관. 1889년 일본에 처음 방문, 1899년 일본에 포르투갈 영사관이 생기면서 고베 부영사로 부임, 훗날 총영사관으로 1913년까지 근무. 퇴임 후 도쿠시마(德島)에 거주하다가 1929년 사망함.

잘못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상 일본과 중국의 전면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미 29군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상하이(上海)·난징(南京)의 공군 세력도 우리 공군의 위력에 의해 완전히 격멸되었다. 중국은 힘으로 일본에 대항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 2.

일본은 북중국 농민의 구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의 좌익 청년제군! 거국일체가 되어 중국의 폭력(暴戾)을 응징하고자 힘쓰고 있는 이때, 제군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대중은 위정자에게 권유를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애국의 지성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제군은 어떻게 인식할 생각인가. 마르크스는 현실을 존중했다. 이조의 유학자들이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제군들 같은 배일적(排日的) 젊은 조선인의 존재도 이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다. 지면상으로 아무리 마르크스를 외쳐도 시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후회를 천대에 남기게 될 것이다.

옛날 나는 좌익의 제군들을 동정했다. 그러나 좌익이 그저 이론을 위한 이론에 치우치고 아무런 대중적 배경도 없이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인간은 완전히 봉건시대의 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제군들과 결별한 것이다. 이번 사변에서 방관적 태도를 지닌 약간의 조선인 지식계급에 대해 중요하고 있다. 제군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저 대중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어쩌서 침묵하는가.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닌가. 어느 좌익 청년이 러시아의 비행기가 오면 회중전등으로 xxx의 존재를 알려 주겠다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역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군들이 죽음으로 일본에 대항할 이유는 없다. 일본이 조선에 베푼 은혜에 대해 제군들은 너무나 모른다. 제군들의 의식주·일상생활·학문·문예는 일본화 되었고 일본과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내가 수차례 거듭 말한 것처럼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조선인은 모두 일본인이다.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청년들은 일본 국민으로서 혜택 받은 생활을 누려왔다. …… (판독 불능)…… 쌀은 양질의 쌀이 되었다. 빈대도 격감했다(작년부터 xx살충제가 나온 이후 사라지고 있다). 인구는 증가했다. 우리는 영·프·독의 책들을 읽고 세계의 대세를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누구 덕분인가. 제군들의 마르크스주의라는 것도 일본 내지인이 가르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인적 자각에 눈을 뜰 때이다. 제군들이 사회주의를 버릴 수 없다면 그대로도 좋다. 사회대중당도 합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당당한 일본인이다. 제군들의 생활이 아무리 절약해도 고통스럽다면 사회에 호소해도 좋다. 그러나 일본인으로서 그렇게 하라. 민족적 반감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고 비열하다. 조선인들끼리 서로 존경한 적도 별로 없는데 민족적 단결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 지식계급의 내지인·조선인 청년, 일본적 사회주의자, 혁신적인 신세력, 이러한 자들이 제군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불평이 있다면 그들과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일본을 일체의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열애하라!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전쟁터로 가는데 어쩌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가. 저 □□의 감격! 일체의 논리를 버리고 공감하고 공명하라! 무엇보다 제군들 안에 있을 터인 사랑의 불꽃을 태우라! 사랑만이 일체를 화육(化育)한다. 동정으로는 안 된다. 일본에 대한 사랑이다. 먼저 다시 태어나 신인간이 되어, 그렇

다 한 사람의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 일본애(愛)로 불타올라야 한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다! 일본인(내지인)은 사회주의자여도 열렬히 신국 일본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지인의 애국심에 □□하는 것이 좋다.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 구원될 방도는 없다.

### 3.

제군들의 중에 어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소비에트 러시아에 애착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좀 더 어학을 공부해서 ××나 ○○가 없는 양서를 구입해 읽어라. 그리고 1925년·1930년과 1937년이 얼마나 □□했는지를 배우도록 하라.

파리에 망명한 케렌스키는 「스탈린주의의 운명」이라는 논문에서(World Review, July) 파리의 위정자는 타도 스탈린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3년 전이라면 스탈린 만세를 외쳤을 터인 파리 노동자들이 어째서 스탈린을 죽여라며 갑자기 일어났을까. 노동자는 이전보다 좌익적으로 되었지만 러시아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드나 트로츠키의 러시아 비판은 100% 반동적인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할 경우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당통을 죽이고 프랑스 혁명이 막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청당(淸黨)사건으로 러시아혁명도 종언을 고한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동방을 점령하라)라는 지명은 어째서 개명하지 않았을까. 러시아는 완전히 제국주의이다. 이 적색 제국주의를 뒤집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부여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물론 구미의 제국주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다. 동양은 동양인의 손으로 재건해야 한다. 동양인은 역시 동양인이다. 서양문명 없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에서 가져올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예부터 이미 시험이 끝난 것이고 새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이상하다. 러시아혁명의 참사와 스페인 내란의 잔인함을 이 동양의 천지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가장 올바른 것만이 남는다. 러시아혁명은 유물변증법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하트를 잊고 전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파탄을 초래한 것이다.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 파악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반대당의 국민이라면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는 것은 유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무방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의 마음을 무시한 방식이다. 주의(主義)에 의해 객관이 움직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일체의 희망을 갖는 것은 비열하고 □□하다. 제군들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진지하게 공부한다면 제군들도 러시아 승배의 미망에서 깨어나 일본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 4.

북지사변은 전 중국으로 확대되려고 한다. 중국이 각성할 때까지 일본은 단호히 매진할 것이다. 실로 중국인이 그 두뇌와 심정이 철저히 개조될 때까지 일본은 백년대계를 세워 중국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이다. 조선의 젊은 인텔리겐치아 제군들, 제군들은 결코 중국인 근성을 갖지 말라. 러시아 승배는 분명히 사대주의이고, 노예근성이다. 이 노예근성부터 깨부수지 않으면 제군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 일본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영원히 발전하는 국가이다. □□조(條)의 어서문(御誓文)에 있는 것처럼 “각자 그 뜻을 펼칠” 때까지 일본은 끊임없이 □□되어야 한다. “……(판독불가)…… 상태에 있는가. 국민생활의 상태는 어떤가”(아라키(荒木貞夫) 씨, 『문예춘추(文藝春秋)』 8월 중간호). 아라키(荒木) 대장이 아니라도 현재의 일본을 유토피아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화육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생성 발전하는 혁신 일본이다. 이 청년 일본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청년 일본의 자식이다. 제군들은 일본을 ‘자본주의’라거나 ‘××주의’라고 말하기 전에 청년 일본을 짚어지고 일어설 힘을 길러야 한다. □□□□ 먼저 일본인이 되라. 이것이 성립하기 전의 일체의 논의는 쓸데없다.

(8. 18)

〈출전 : 玄永變, 「非常時局と朝鮮人の覺悟」, 『朝鮮及滿洲』 第358號, 1937년 9월, 30~33쪽〉

### 3) 내선일체 완성으로의 길

#### 1.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방향에 부합한 정치·경제적 근거와 함께 내선일체의 사상적 근거, 철학적 기초 만들기가 필요하다. 또한 내선일체의 예술적 토대도 구축해야 한다. 내선일체의 도리(道理)와 미(美)가 만인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나는 이 소론에서 이러한 점에 관해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만약 내선일체라는 사실이 단순한 의무라면, 혹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필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성이나 감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내선일체라는 사실은 영구히 존재하지 않고 일시적 포말현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비상시이기 때문에 비상시가 이어지는 한 내선일체일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내선일체는 알 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나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내선일체라는 사실은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시대의 역사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사실은 없으리라. 나는 내선일체를 향한 길에서 도리의 필연과 미 또는 사랑의 필연을 본다. 혹은 인간적 필연을 본다고 할 수도 있다.

모든 진리는 구체적인 것·일상적인 것·인간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영원한 존재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 나는 내선일체가 그러한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선일체는 사회법칙의 발전 코스에 따른 현상이며 세계의 그 어떠한 사람도 반대할 수 없는 도덕적 현상이다. 만약 세계가 다른 국민·다른 국가·다른 민족 내지 다른 인종을 배척하고 이단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국민·국가·민족·인종에 의해 성립한다면 이 세계는 영원한 전쟁터가 되고 아수라장이 된다. 거기에는 평화는 없고 인류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모두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침략주의·맹목적 애국심에 의해 인류는 서로 살육할 뿐이다. 이에 반해 세계를 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입장, 사해동포라는 감정, 인터내셔널이라는



감정이 있다.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사상,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사해가 모두 동포인 이 세상에 어찌 풍파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늘은 떨어져 있지 않고 지상의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이라는 시문에서 보여주신 이상과 러셀 등의 세계국가설(국제연맹이 아니다), 모두 세계일체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세계를 집으로 보고 나아가려는 감정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올바른 도덕적 세계 위에 선다. 그것은 이상이 명하는 경지이며 인류 진보의 방향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내선일체는 인류 진보의 코스에서의 한 현상이다.

## 2.

판자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곳은 판자의 일부분이지만 그 불은 집 전체를 불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 육체에서 혀를 제거한다고 치자. 그 살덩이는 신체의 일부분인 동시에 전체의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부분 안에 전체가 깃들여 있다. 이 원리는 그대로 인류사회에도 해당된다. 인류는 불가분의 하나의 전체 사회이며, 세계는 하나의 집을 형성하고 생존하는 것이 인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 일본에 저항하며 살고자 하는 중국은 인류의 분열·투쟁·해체·파괴를 요구하는 것이지 평화와 건설이 아니다. 인류가 서로 사랑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중국의 군벌, 국민정부, 공산당 등의 폭력에 의한 대중 착취·대중 살육 기관은 하루라도 빨리 없애는 편이 동양인의 진보와 행복을 의미한다. 장 부자<sup>119)</sup>의 전제정치가 만주에서 소멸하고 만주국이 성립함으로써 만주의 민중들이 이전보다 행복해진 것처럼, 조선에서 일찍이 존재한 나쁜 정부가 소멸함으로써 조선에는 신천지가 열려 조선인은 행복해졌다.

세계에서 국가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내가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진리이다. 혹자는 “정부는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다. 선정을 베푸는 정부가 너무나 적지 않은가. 국민을 불행하게 한 국가가 참으로 많지 않은가. 중국 국민정부가 그러하고, 소비에트의 공산당 정부도 그러하며, 영국 정부도 그러하다. 후자의 정부는 영국의 국민을 행복하게 했을까? 한때는 해외로 발전함으로써 국위를 세계적으로 선양했으나 그것은 모두 패도(霸道)에 지나지 않고 도덕의 세계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의 버림을 받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국가와 정부에는 이상이 없고 세계의 평화·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이 없다. 영국 타도론이 저널리즘 세계에서 춤추기 전에 우리는 영국 국가의 도덕적 열등성을 지적해왔다. 아니, 심지어 그 멸망까지 나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예언한 적이 있다. 영국의 시민, E.M.포스터도 버트란드 러셀도 모두 영국의 멸망을 외치고 있다. 불행하구나, 영국 국가! 정의일본에 반대하기 때문에 영국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평화를 국가의 이상으로 삼지 않는 국가는 그 어떤 국가도 존재이유가 없으며, 또 현실적으로 존재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있다. 영국은 그 하나의 예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한 인류의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어찌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 조선의 민족주의자는—만약 존재한다면—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페스트이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중국 국민정부처럼 악정을 펼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인류의 발전법칙에 거스르는 짓이다. 사회주의자는 국제적 결함을 생각하고 있는

119) 장쥘린(張作霖)과 그의 장남 장쉐량(張學良).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일본 '내지인'<sup>120)</sup>과 함께 사회운동에 종사한 조선인들 중에는 드물게 민족적 감정을 완전히 청산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는 일본 내지인과 함께 일하기를 꺼린다. 인류를 분열과 투쟁으로 내모는 이러한 민족주의자에게 사멸하라고 외치고 싶다.

### 3.

내선일체는 자신과 세계의 행복을 바라는 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내선일체는 단지 우리 이상을 만족시키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감정을 살리는 것이다. 내선일체는 예술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본 내지인 여성이 천인침(千人針)<sup>121)</sup>을 조선 부인들부터 만들어 받는 그림은 훌륭한 예술품이어야 한다. 법률에 표현되지 않은 일본과 조선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얼마나 많은가. 우정에서 연애에서 결혼에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일본과 조선에 상당수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과 조선 간의 연애가 아무리 많이 비극으로 끝났다 해도 거기에도 법률적·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인생 그 자체가 비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비극을 맛보았다는 그 자체가 인생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무미건조한 생활보다는 비극이 있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일본·조선의 연애가 파탄되었다 해도 문제는 파탄이 아니라 그 연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 출발점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인류사에 대한 암시가 있다. 내일 어떤 사정으로 번복된다 해도 오늘 훌륭하게 성립한 인생의 작은 사실이 먼 장래에 영원한, 큰 사실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옛날부터 날고자 했으나 실패만 거듭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인간은 훌륭하게 하늘을 산보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쩌면 온전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본과 조선 간의 사랑노래도 언젠가는 완성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인이 향상·발전해서 일본 내지인처럼 훌륭하게 될 때, 이 예술의 세계도 실현될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은 심지어 여급이나 창부로부터도 환영받지 않는다(오사카부 사회과(大阪府社會課),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朝鮮人勞働者の生活)』 참고). 내선일체는 서로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최승희(崔承禧) 여사의 조선정취를 풍기는 무용을 사랑하는 일본 내지인, 조선 부인의 여름옷을 애용하는 내지인 여성, 김치를 좋아하는 내지인, 아리랑을 부르는 여급—이러한 조선적인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일본적인 것, 서양적인 것을 사랑하지만—의 존재는 조선인을 유쾌하게 만드는 데 충분할 것이다. 나비부인에 출연해서 많은 일본 내지인을 즐겁게 하는 조선인, 일본 내지의 유행가를 부르는 조선인 소설가, 미술가,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그런 방향으로, 내선일체의 방향으로 매진해야 한다. 조선인들 중에도 농업이나 상업보다 철학이나 문학에 전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

120) 일본인.

121) 출정 군인의 무운(武運)을 빌기 위해 한 장의 천에 붉은 실로 1,000명의 여성이 하나씩 매듭을 뜬 것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무렵 시작되어 중일전쟁 이후 일반화됨.

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인으로서 일본국에서 발휘해야 한다. 대학의 문과가 사범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학 출신의 조선인 문학자(교사가 아니라 전문 문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예술의 세계에서 내선일체야말로 정치·도덕보다 더 필요하다. 정치적·도덕적 내선일체의 진정한 건설은 예술적 내선일체의 수립 없이는 완성되지 않으리라 본다. 먼저 조선인이 일본적인 것을 사랑해야 한다. 서양적인 것도 일본화하면 일본적인 것이 된다. 기차가 일본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인이 나가우타(長唄)<sup>122)</sup>나 나니와부시(浪花節)<sup>123)</sup>보다 관현악이나 오페라를 훨씬 좋아한다 해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쇼팽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서양 음악 다음으로 일본음악을 좋아한다. 불행하게도 나는 이조시대의 아악 이하 조선음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아악을 듣고 시를 짓는 시인(일본 내지인)도 있으니 조선음악도 내선일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일체가 되었지만, 일본 내지인이 서양적인 것—사상·예술—을 일본화해서 조선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또 조선인은 서양문화를 일본화 함으로써 서로 내선일체로 다가가야 한다. 나는 일체의 조선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싶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을 일본화 하는 하나의 수단은 일본화한 서양적인 것을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선인 청년은 서양적인 것에 쉽게 물드는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서양적인 것을 부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많겠지만, 일부 조선인은 서양적인 것을 혈육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 서양적인 것 곧 부화경조(浮華輕佻)라며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생활적으로·예술적으로 조선인이 일본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국어’<sup>124)</sup>의 상용일 것이다. 미인이 된다고 하는 고추—그러나 위장병이 될 때까지 지나치게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지만—를 먹어도 좋겠지만, 조선인이 국어를 예의상, 사무적인 일에만 사용하고 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상용하지 않는다면 조선인은 도저히 일본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녹기(綠旗)』 제2권 제6호, 「세계의 귀일과 언어의 통제(世界の歸一と言語の統制)」; 『조선 및 만주(朝鮮及滿洲)』 1936년 9월호, 「정치론의 한 장면(政治論の一齣)」; 졸저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 참고), 내선일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또 국민의 의무로서 국어 애용·국어 상용만큼 필요한 것은 없다. 보통학교의 명칭이 소학교가 되고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암송하여 일본인으로서의 각오를 더욱 굳게 하고 있는 현재, 그 서약에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생활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은 일본을 떠나서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다. 일본에 태어나 일본인으로서 죽을 뿐이다. 다양한 사회조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감정을 품어도 그것은 자신의 집에 대한 감정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대립적인 감정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완전히 일체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면 먼저

122) 가부키에서 전통악기 샤미센(三味線) 반주로 발달한 일본 전통음악.

123) 샤미센 반주로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전달하는 일본 전통음악.

124) 일본어.

국민사상통일에서—근본사상을 통일해야 한다. 양복을 전부 일본 옷으로 통일하는 식의 통일은 압제이다—반드시 필요한 언어의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 가정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한 조선인의 국어는 ‘외국어’의 일종이 되고 국민사상은 외형적 장식이 될 우려가 있다. 조선인이 진정으로 일본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조선어를 망각할 일이다. 이 필요에 종사하는 사람조차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답답함을 느낀다.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조선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조선어를 오랫동안 존재시키고 조선적인 저급한 문화를 주어서 그 이상의 발달을 저지시키는 일이다.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일본이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내선일체라는 것은 일본인·조선인 모두를 향상시키는 도덕적 당위이다. 내선일체라는 고원(高遠)한 이상은 일본 내지인이나 조선인을 눈앞의 물질적인 생활에서 정신적 생활로 끌어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내선일체는 새로운 조선의 희망이자 여명이 되어야 한다.

(12. 6)

〈출전 : 玄永燮 「內鮮一體完成への道」, 『綠旗』 第3卷 1號, 1938년 1월, 26~31쪽〉

#### 4) 사변의 인류사적 의의와 내선일체의 동아협동체 완성에 대한 기여 -사변 제2주년을 맞이하여 생각하는 것

1.

러셀은 그의 저서 『권력론』(1938)에서 “과학은 백인에게 세계제패를 주었지만 일본인이 백인의 기술을 획득하고 난 뒤부터 백인은 세계제패를 잃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또 그는 다른 저서에서 영국의 세계정책은 일본에 의해 깨졌고 일본은 제2의 영국이 된다고 했다. 러셀은 일본의 정신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는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장래를 잘 알고 있다. 가령 그는 일본이 세계로 진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영국제국주의에 이어 세계 패권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주의도 조락(凋落)한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 나는 러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일본이 제2의 영국이 된다고 한 그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오류이다. 일본이 만주국·몽고·중국·티베트를 인도나 남아프리카처럼 지도한다면 어쩌면 제2의 영국이 될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본의 행동은 동양인을 침략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백인의 부당한 압박을 제지하고 스탈린의 포악함을 동양이나 세계에서 방어·배격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영원성이 있다. 정의와 사랑에 입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생명이 길다. 시저보다는 그리스도, 나폴레옹보다는 루소, 스탈린보다는 톨스토이의 생명이 영원하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눈앞의 물질적 욕구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모습을 본다. 우리 일본인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을 믿는데, 본능적으로 로맨티스트인 성격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상(理想)정신에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7,000만 야마토민족(大和民族)<sup>125)</sup>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 인

125) 일본 민족.

류는 어찌 되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본은 영원히 승리한다. 이는 과학적 정확함을 지닌 신념이다.

동양에서 백인의 압박을 배제하는 것, 이를 위해 동양인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 이는 전 아시아인의 생명 의지이다. 중국에서 투자해도 현대와 같이 전체주의적 경제기구에서는 부당한 이득에 취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득실을 떠난 어쩔 수 없는 정신이 사변을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의 토착자본주의가 그 기반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민중을 마음껏 착취하기 위함이고, 장제스(蔣介石) 정권의 권력욕이며, 공산당의 자기표현이다. 우리는 싸구려 휴머니즘에 의해 저항하는 중국에 동정할 수는 없다. 결사대를 조직하는 중국인을 보고 나는 그 비굴함과 이기심을 청산한 태도에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비록 적이지만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국 민중을 자신들의 야심의 희생양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는 중국의 지식계급과 정치가의 편협함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루마니아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극히 무조직적인 것이고 이것이 통일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강제적인 통일은 비참하지만, 통일은 조직이 박약할 때 병이 외복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찾아오는 것이다. 유럽의 분열 상태는 오늘날의 정치·경제 상태에서 추측해 보건대 분명 병에 걸린 상태이고, 통일로만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조선이 일본의 일부가 되어 반도 민중이 이제 청년 일본인으로서 양기(揚棄)되어 행복을 약속받고 만주국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동양의 일체화는 '반도인(半島人)<sup>126)</sup>이나 만주인을 살리고 있다. 중국은 봉건적 히어로리즘에서 동양의 일체화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류의 생활의 지는 그러한 것을 부정한다. 일본은 생존을 위해 중국을 필요로 하고 중국도 일본을 필요로 한다. 일찍이 수많은 국민당 당원들이 일본의 교육을 받았고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청년들이 일본어로 번역된 마르크스나 레닌을 읽었다. 중국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배웠다. 일본과 중국이 싸워도 문화의 교류는 피할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전쟁은 최초의 접촉이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어가 아니다. 왜곡된 사랑일 뿐이다.

나는 '지나사변(支那事變)<sup>127)</sup>을 인류 결합 과정에서의 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 어떠한 것이 장제스 정권을 원조한다 해도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 2.

사변은 세계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자 동아의 신질서 창성(創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식적인 수단으로는 사변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변은 국내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면 해결로서는 사변 중에만 총력전태세를 갖추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양의 신질서는 세계의 재건과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도 국민도 변모한다. 일본의 전체 모습이 변할 것이다. 동아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져야 한다. 영국은 식민지를

---

126) 조선인.

127) 중일전쟁.

영유함으로써 국부를 증강시켰고 노동자의 생활도 이른바 ‘노동귀족’을 낳았지만, 지배계급과 일반 서민층의 거리는 너무나 큰 격차가 생겼다. 일본은 앞으로 부유해지겠지만, 빈부격차를 현 상태 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생산의 합리적 분배(물론 일본정신에 입각한 해결이지만)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하고 전 인류가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해야 한다. 동아의 협동체가 결성되기 전에 국민협동체가 완성되어야 한다. 어쩌면 전자의 완성 후자의 완성은 동시적일지도 모르겠다. 일본은 하나의 가족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체로 세계 지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곧 부러워하며 모범으로 삼을 일본 국가의 현 상태는 어떻게? 일체의 국민들이 황실을 중심으로 사심을 버리고 언제라도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의 단결과 통일이 나머지 세계 민중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만 이외에 국민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일본 국민으로 편입된 신일본인인 반도인·대만인과 일본 내지인의 생활 일체화는 어떻게? 먼저 일본 내지의 농촌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생활 정도가 뒤쳐져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딸을 기녀나 창녀로 팔아넘기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비국민(非國民)은 없을까?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일하는 소년소녀는 공부를 마치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을까? 생활이 안정된 사람을 더 우대하는 모순은 없을까? 교통기관 이용에 관해 국민의 공민도덕은 완전한 것일까? 진정으로 국가의 영원을 생각하는 자 입장에서 눈앞의 현 상황을 어찌 만족할 수 있겠는가. 나는 관료나 정부를 공격할 마음은 없다. 국민 전체, 일역 동포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동포애를 갖기를 요구한다. 종로 거리에서 아내의 치마를 붙잡고 구걸하는 소년거지의 존재를 나는 무심히 바라볼 수가 없다. 서로 먼저 표를 사려고 다투는 민중이 불만스러운 것이다. 전차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신사’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내지에서 농민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국민이 천황 아래 진정으로 일체가 되고 일가(一家)가 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고, 반도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일역 동포들이 진정으로 단결해서 형제와 같이 우애를 맺기 시작하려는 동향의 표현이다.

세삼스럽게 무슨 내선일체냐고 말하는 논자도 있겠지만, 그런 논자는 일본과 조선의 문제에 관해 피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피상적인 관찰자의 말에 불과하다. 일본 내지의 논단이 현실적이 되고 국내혁신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국민사상과 같이 내선일체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게 될 것이다. 『개조(改造)』나 『중앙공론(中央公論)』이 내선일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유주의적 환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실현은 더디기만 한 것이고, 고대에 동근동조(同根同祖)였다고 해도 언어·풍속·인생관을 매우 달리해서 살아온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은 팔굉일우(八紘一宇)를 먼저 내선일체에 의해 전 세계에 증명한다는 각별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 3.

일본 내지인만 모일 때, 반도인만 모일 때, 일본과 조선의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양심적인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반도인에게 민족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두 사멸의 길이라고 한다면 남은 유일한 혈로는 일본인으로 서 완성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일체의 인텔리가 이를 시인하고 있다. 시인하면서 과거를 추억 하는 태도나 이중인격적 태도는 없을까? 만약 반도 내에 수백만의 일본 내지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선협회(內鮮協和)의 이상으로도 일체(一體)라는 현실이 남을 터인데, 60만 명 정도의 일본 내지인과 2,000만 명 이상의 반도인이 잡거하면서 대일본 국가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보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인이 엄청난 결의를 갖고 일본 내지인-모든 의미에서 일본인이지만-을 모방해야 한다. 조선어에는 죄가 없다든가 반도인의 의복이 어째서 나쁜가 하는 식의 태도로는 수백 년을 기다린다 한들 마찬가지라 단언한다. 반도인이 진정 국체정신을 파악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국체 이론을 해독 하고 암기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체를 낳은 생활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다도(茶道)는 국체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풍류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정신력이 숨어 있고, 이 정신력은 국체정신과 독립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일본어 '가미'를 언문으로 번역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먼저 반도인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일본인으로 모든 것을 얻기를 권 한다.

반도가 규슈(九州)와 같이 될 때, 중국인은 정당하게 일본을 존경하고 동양공동체가 완성되고 세계는 일본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다.

(1939. 5. 28)

〈출전 : 玄永燮 「事變の人類史的意義と内鮮一體の東亞協同體完成への寄與—事變第二周年を迎へて考ること」, 『東洋之光』 1939년 7월호, 25~29쪽〉

## 5) 내선일체 관견(管見) - 연구의 한 각서

### 1.

우리의 연맹 강령 제2조에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완성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지에서 미나미(南) 총독각하를 비롯해 시오바라(鹽原) 이사장, 곤도(近藤) 참사(參事)(12월호 참고), 윤치호(尹致昊) 참여(參與)(창간호 참고) 등의 논문에 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제 내선일체의 이념은 부동의 진리로서 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동아 전반에 걸쳐 확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반도에서는 최고통치기관에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측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호응하여 말과 글로 운동의 강화·철저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나사변(支那事變)<sup>128)</sup> 발발과 함께 '반도인(半島人)<sup>129)</sup>의 유력자들은 각지를 순회하면서 내선일체를 외치고, 그 뒤 내선일체에 관한 문서가 잇따라 발간되었다. 연맹원의 참고를 위해 열거하자면, 김성률(金聲律) 씨의 「사실에서 본 내선

128) 중일전쟁.

129) 조선인.

일체(史實より見たる内鮮一體)」, 쓰다 쓰요시(津田剛) 씨의 「내선일체의 근본이념(内鮮一體の根本理念)」, 본 연맹 발행의 『내선일체의 영지 부여(内鮮一體の靈地扶餘)」, 김문집(金文輯) 씨의 「신민의 서(臣民の書)」(본 연맹 발행), 김두정(金斗禎) 씨의 「방공전선 승리의 필연성(防共戰線勝利の必然性)」, 줄져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 『신생 조선의 출발(新生朝鮮の出發)」, 『충남교육(忠南教育)』 특집호, 『외지평론(外地評論)』 특집호, 『바다를 건너(海を越えて)』 특집호, 『모던 일본(モダン日本)』 조선후 등 기타 수십 권의 ‘소책자’가 있다. 정기간행물로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것 이외에 『총동원(總動員)』·『사상보국(思想報國)』·『방공의 조선(防共の朝鮮)』·『녹기(綠旗)』·『동양지광(東洋之光)』 등이 있고, 내선일체를 촉진하기 위해 ‘대동일진회(大東一進會)’·‘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 등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내선일체의 이상을 위해 신명을 바치려는 청년들이 속출하여 반도를 점차 개신하고 있다. 반도의 새로운 재출발이다. 반도가 이처럼 빛나는 각광을 받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내선일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반도의 현실이다.

하지만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혀 고식인순(姑息因循), 시대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방관하고 있는 자들이 나와 같은 청년들 눈에서 보면 아직 약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완미한 무리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노장년층에게 약간 존재한다. 반도의 사회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듯하다. 내가 이 논문을 집필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함이다.

일전에 어느 결혼식에서 모 전문학교 생도가 축사로 다소 어깨에 힘을 주고 서력기원을 사용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황기(皇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예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는다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그러한 사상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이기적이고 사의적(私意的)인 민족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기적인 민족감정이라는 것은 인류평화를 파괴하는 것일 뿐이고,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파괴사상이자 위협사상이다. 때문에 레닌은 세계 각국을 정복하기 위해 약소민족주의를 이용한 것이다. 그 후계자들은 이제 대제국 건설을 위해 각국을 침략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는 세계대전 후의 유럽의 운명에 의해 명확해졌다. 폴란드·핀란드·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알바니아·에티오피아의 운명을 보라. 지금 전전공공하고 있는 약소국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상상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독립했지만 영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에서의 근대국가의 발생은 개인주의 사상의 유물이며, 제각각의 국가들을 만들어 용쟁호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하 민족주의에 대해 그 결함을 지적하고 내선일체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2.

내선일체를 논할 경우 일본인·조선인 이외의 민족문제를 논할 필요는 본질적으로 없으나 우리는 타산지석으로서 세계의 대세를 볼 필요도 있다. 가령 영국인이 스코틀랜드인·웨일스인 등과 싸워 합병하고, 아일랜드인과 합병하고 싸웠다는 사실은 참고가 된다. 언어·풍속이 같아도 이상을 달리한다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철을 밝게 되리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일랜드인은 그 독립사상을 영어로 선전했다. 아일랜드가 언어·풍습이 같은 영국인에게 반항한 것은 영국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일랜드의 책임이기도 해서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민족투쟁이다. 내선일체를 훌륭하게 완성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현 상황은 어떤가? 비록 영국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으나 부국강병이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언제나 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떨어져 나오는 대신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에 꼬리를 흔들거나 히틀러의 승리를 바라면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때로는 국제연맹에서 일본 반대를 하거나 해서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하는 대신 제멋대로 행동한다. 영국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째서 완전한 영국인이 되어 영국을 세계의 무시를 당하지 않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 하고 묻고 싶다. 어떤 때는 아일랜드는 영국과 협력하고 일체가 되려고 노력했다. 스위프트·버크·쇼·와일드 등의 인물과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아일랜드 출신 농민들은 영국인이 되었다. 영국에 의원을 보냈을 때의 아일랜드인은 영국인으로서 세계에 무게를 두었다. 대영제국 내에서는 명예로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권력을 다툰 당파 사이를 견제함으로써 강력한 정부를 좌우하는 일조차 있었다. 웨스트민스터의 의회에 아일랜드 인구 비율보다 3배 이상의 의원을 보낼 수 있었다. 가톨릭과 아일랜드인은 국외에 나갔을 경우 유럽의 각종 가톨릭 회합의 환영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자유국 아일랜드를 신경 쓰지 않는다.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일랜드의 지도자들이 낡은 켈트어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노력조차도 이 섬나라를 더욱 고립시키고 역사에서 후퇴시키고 있다. 버나드 쇼는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떨어지지 말고, 알스타(아일랜드의 한 지방)는 아일랜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쇼의 생각이 드 발레라보다 현명했다.

인도 문제는 성질이 약간 다른데, 최근 인도의 민족주의적 경향에는 우리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할 만한 것이 있다. 인도는 독립하려고 하지만 영국의 선전, 소비에트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타고르·간디·네루 등이 장제스(蔣介石) 등에게 동정을 표하기도 했다. 인도가 독립한다면 공업과 무기를 필요로 하고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나는 제2의 장제스가 될 위험성마저 있다고 본다. 간디의 촌락공업주의는 인도를 부유하게 하지 않고 그 무정부주의·금욕주의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다. 네루의 사상은 영국의 자유주의와 소비에트의 사상인데, 그의 독립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가 품어서 그릇됨이 없는 우리 일본정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이니 뭐니 해서 실제로 영국이나 소비에트와 유사한 국가를 건설한다면 평화를 파괴하게 된다. 내가 인도 독립에 공감하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점이고, 인도는 영국이나 소비에트의 허위를 철저하게 억제하고 재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힘은 인도에는 없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따라서 친일적 인도의 독립이라는 것은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 이외에는 위험하다고 본다.

장제스의 민족주의도 이기적인 민족주의이고, 멸만흥한(滅滿興漢)의 민족주의에서 항일흥아(抗日興亞)의 변태적 민족주의로 바뀌었다. 이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인의 침략도 지나사변의 원인이며, 장제스 일파의 이기적 민족주의도 사변을 발발시킨 한 원인이다.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면 동양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 사상은 이민족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 통저우(通州) 사건이나 상하이(上海)에서 일본인을 전부 죽이려고 한 생각 속에는

구제하기 어려운 민족적 감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하다.

### 3.

최근 일본정신은 일본민족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일본민족이라는 개념 속에 일본·조선·타이완, 아이누인을 포함한다면 나는 수긍할 수 있다. 민족이라기보다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일본정신은 일본 국민인 자가 받아들여야 할 사상이다. 헤른<sup>130)</sup> 같은 귀화인, 모라에스<sup>131)</sup> 같은 인물은 일본 국민이다. 일부 반도인보다 일본정신을 이해하고 체득했다.

‘인간’·‘인류’·‘세계’를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은 현실 생활을 갖고 있는 인종과 민족, 국민에 대해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 인간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혹은 세계평화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죄악이 유럽인종에 의해 저질러진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인류·세계·평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본정신에 의해 여과된 인간(사람)·인류·세계(사해)·평화는 있다.

사해동포주의라 하면 그것은 기독교지 일본정신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어정쩡한 무리들도 없지는 않지만,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기년제(祈年祭)<sup>132)</sup>의 축사를 읽어 보라. “푸른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고, 흰 구름이 저 멀리 가득 깔린 데까지” 전 세계가 황국(皇國)이다. 팔굉이 하나의 집(一家)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야말로 사해동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유럽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은 떨어져 있지 않고 지상의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사해가 모두 동포인 이 세상에 어찌 풍파가 일어나는 것인가.

라며 메이지천황께서 가르쳐 주셨다.

일본은 “지식을 세계에 구하고” 이제 세계를 지도하고 “이를 고금을 통틀어 그릇됨이 없이 이를 중외(中外)에 베푸는” 일본정신에 의해 우주의 창조 때부터 무한의 미래까지 존재하는 나라이다.

금상(今上)폐하의 “사해동포의 깊은 우의를 다지지 않는 일, 이는 짐이 진정으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며”라고 말씀하셨고(즉위하신 뒤 조정의 대신들에게 내리신 칙어), 또 “황풍(皇風)을 우내(宇內)<sup>133)</sup>에 펼쳐”(1928년 11월 10일 즉위식 당일 자신전(紫宸殿)에서 거행된 의례에서 내리신 칙어)라고 말씀하다. 또 “대의를 우내에 현양”하고 “널리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기하라”(국제연맹 탈퇴에 관한 조서)고 하였고, 지나사변 1주년에 내리신 칙서에는 “일본과 중국의 제후를 굳게 함으로써 공영(共榮)의 결

130) Patrick Lafcadio Hearn, 1850~1904 : 그리스 출신으로 신문기자·수필가·소설가. 1896년 도쿄제국대학 영문학 강사 시절 일본에 귀화, 일본 이름은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

131) 모라에스(Wenceslau José de Sousa de Moraes, 1854~1929) : 포르투갈 출신의 외교관. 1889년 일본에 처음 왔고, 1899년 일본에 포르투갈 영사관이 생기면서 고베 부영사로 부임, 훗날 총영사관으로 1913년까지 근무. 퇴임 후 도쿠시마(徳島)에 거주하다가 1929년 사망.

132) 매년 음력 2월 4일 오곡풍요(五穀豊穰)를 기원하던 의례.

133) 천하·세계.

실을 거두는 것은 참으로 세계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바이다”라고 하셨다. 너무나 큰 성려(聖慮)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일본정신은 결코 편협한 민족정신이 아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받들기를 바란다. 영국인은 영국의 정신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다. 러스킨은 영국이 세계평화의 중심이라며 옥스퍼드 대학생을 격려했다. 그렇지만 키플링은 이민족과 동양인을 무시한 탓에 발밑 아일랜드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영국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스페인이 실패한 것처럼 영국도 실패한다. 스탈린의 소비에트도 세계를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하려고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일장기를 세우기 위해 잘못해서 적기(赤旗)를 세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장기가 이길지, 적기가 이길지, 이것이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일본에 의한 세계의 평화 확립(통일)만이 가장 실현성이 있다.

#### 4.

사실 인류가 통일을 꿈꾼 것은 참으로 오래되었는데, 그리스도도 석가도 인류의 평화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국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 처럼 편협한 민족정신에 빠져 있는 민족에 의해서는 세계통일 사상은 실패한다. 공상적 세계정신(허무사상) 같은 것은 추상적 인간 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 국민이 되어 인류의 평화를 완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정신에는 동서양의 일체의 좋은 생각들이 순수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군대는 서양의 옷을 입고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이다. 이것이 일본정신을 가장 적절히 상징한다.

반도인도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도인으로서, 일본 국민으로서, 세계 인류의 일원으로서 죄악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세계의 평화는 동아의 평화에서 시작되고 동아의 평화에는 합병정신의 완성, 즉 내선일체의 완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선일체에 반대하는 자는 전 인류의 구적이다. 지금 만약 내선일체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내문제이지만, 팔굉일우의 단계에 달했을 때는 그 반대자의 지위는 영구히 말살될 것이다. 사탄의 마음을 지닌 자는 민족주의적 정신에 취해 있을 것이다.

#### 5.

인류의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내선일체의 필연성을 인식한다. 그렇지만 인식은 하더라도 감정의 생활에서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대에는 내선동조(內鮮同祖)이고 동문동어(同文同語)이었는데,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언어나 풍습의 차이가 어쨌단 말인가. 그런 것 때문에 내선일체가 지연된다면 언어와 풍습을 단일화·일원화·동화시켜야 한다. 인류 문화의 유산으로서 고대 일본어, 혹은 고대 중국어 등의 연구 자료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체의 조선어, 그 방언은 전부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도인은 불행하게 되는가? 그러한 사상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JODK의 제1방송에서 계정식(桂貞植)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혹은 박경희(朴景嬪) 여사가 노래를 부를 때 조선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할까?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어가 되었다. 그렇지만 가사를 전부 조선어로 노래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아리랑·추

심가·도라지타령의 선율은 남는다. 노래 내용은 ‘국어’<sup>134)</sup>로 표현해도 되는 것이다. 김인승(金仁承) 씨의 그림 어디에 조선어가 있단 말인가. 그 그림을 김씨가 가나이(金井)라는 이름으로 그리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단 말인가. 손기정(孫基禎) 씨가 오손자기(吾孫子基)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내일부터 마라톤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 반도인의 풍습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것이다. 새로운 일본 국민이 되어 갱생한 그 기분을 형태상으로 표현해도 된다. 진정 완전한 일본인이 된 사람이라면 형태에 있어서도 일본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이러한 지엽적인 데서 일체가 되어 일본정신의 중심이 국제정신으로까지 도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의미도 모른 채 ‘애국행진곡’이나 ‘바다에 가면(우미유카바)’를 부르는 데서 일본정신을 배우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일본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를 가르침으로써 점차 일본정신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는 요컨대 내선일체는 일역의 동포에게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긍정해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이고, 또 일역 동포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떠맡아야 할 당위 가운데 하나이다. 내선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있다는 것은 화석적·유물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1939. 12. 8)

〈출전 : 玄永燮 「內鮮一體管見 : 研究の一覽書」, 『總動員』 第2卷 1號, 1940년 1월, 33~37쪽〉

## 6) 내선일체와 총후청년의 임무

현영섭(玄永燮, 天野道夫<sup>135)</sup>)

### 1. 세계신질서 창성(創成)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근본이념

‘엘렌·케이’는 그 저서 『아동의 세기』에서 구라파(歐羅巴)의 근세국가가 19세기 말기에 북남서동에 서의 폭력의 발호(跋扈)는 쇠퇴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찍이 ‘스팽글리’는 서구의 몰락을 말하였고 J. 휴이징거는 『내일의 그림자』라는 책에 구라파의 도덕표준의 저하를 개탄하였다. 헤르만 카이사린 백(伯)은 서구의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로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서구의 세계는 붕괴의 전야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S 엘리엇에 의하면 기독교의 전통을 입증하였다고 말하였다. 버틀란드 러셀은 그 저서 『자유와 조직』에서 구미제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폭로하였다. 이번 영국·프랑스 대독전쟁(英佛對獨戰爭)에 있어서도 라스키, H.G 웰스는 자기 나라가 하는 행동이 이기적 동기에 불과하다면 전쟁의 이유는 없다고 영국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J. 헉슬리 혹은 C.D 코우틀이나 모두 제2차대전 후에 정당한 공평한 질서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유럽 위에 섰던 서구 문명은 자유주의로 인하여 전통적 집단적 사회관습과 도

134) 일본어.

135) 현영섭의 창씨명.

덕률이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종교를 파괴하여 우민정치를 초래하였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와해에 임박한 서구 사회는 소련식의 국가공산주의나 독일·이탈리아와 같은 전체주의로써 그 생존을 계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영국·프랑스의 민주국가에는 아무 사상적 근거도 사회적 신조도 없다. 조삼모사, 주저(躊躇), 준순(浚巡)할 따름이다.

공산주의에 의한 신질서가 적색제국주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 결코 자본가의 편견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이고 전세계의 지식인의 상식이다(만일 반도 청년에 공산당 운동에 동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20세기의 백백교도(白白教徒)<sup>136)</sup>이며 악마에 불과하다고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단언한다). 독자는 소련 폭격기가 헬싱키시를 사도화(死都化)하는 시사영화를 기억할 것이요, 독일과 공모하여 폴란드(波蘭)를 침략한 사실을 불망할 것이다. 영국의 공산주의 작가 스티븐 스펀더는 작년 가을에 과거 '10년간에 써놓은 좌익 저작물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추억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청산하였다'고 N.펫파는 말한다.

독일·이탈리아의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건전하지만 국가개인주의, 이기적 국가주의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영원한 질서가 창조되지 아니한다. 독·이 양 국가에서는 만기공론(萬機公論)이란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개인주의도 아니며 전체주의도 아닌 제3의 방향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산주의도 결국은 개인주의다. 유물론도 아니며 유심론도 아닌 일층 넓은 입장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유물론과 전체주의로는 개인적 자주성이 부정되므로 도덕적 개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 개인주의로는 국가사회가 방편적 도구화되어 국가사회의 현실성, 현재성을 체득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일본정신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전체성의 현재성과 개인의 자주성을 종합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 동양문화의 본질도 이에 가까운 것이다.

영국은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인도인과 중국인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하였고 프랑스는 그 자유, 평등, 우애의 국시를 베트남(安南)에 적용하지 않았다. 미국인은 흑인종과 원주 인도인에게 제퍼슨주의(Jeffersonism)으로는 대접 아니 하였다.

여기에 유색인종의 제 민족이 일체로 단결하여 동아해족(東亞解族)을 위하여 투쟁 안할 수 없게 되는 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관 인생관의 근본차이, 백인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려는 현실적 요구,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세계의 참된 평화와 질서와 통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 세계유신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 제1단계는 1900년 북청사변(北淸事變) 당시의 일본군이 구미군대보다 압도적으로 선전한 데 있었다. 그 후 일러전쟁(日露戰爭)에 우리 일본이 당시 세계최강국의 하나인 러시아(露西亞)를 이긴 것이 제2단계다. 일러전쟁 후 인도(印度)의 지사(志士)가 얼마나 일본을 동경했는가(천심전집(天心全集) 참조).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인종평등법안을 제출하자 목살을 당하였다. 이 제3기부터 구미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압박하였다. 이것을 일축한 것이 제4기의 만주사변과 국제연맹 탈퇴다. 제5기의 '지나사변'<sup>137)</sup>은 만주사변의 계속이며 일러전쟁과 같은 제2의 성전이다. 사변 중 중

136) 백도교에서 파생된 동학(東學)의 유사 종교의 하나.

137) 중일전쟁.

국민은 일본 내에서 한 명도 학살되지 아니 하였다. 그것은 국민이 사변의 원인이 장개석(蔣介石) 일인의 항일적 민족주의에서만 출발하지 아니한 것을 자각한 까닭이다.

일본이 중심으로 동양에서 신질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반공화평의 왕정권(汪政權)이 성장하여 이와 굳게 악수하여 가지고 전동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전 동양인은 짊어지고 있다. 우리들은 '사해동포(四海同胞)'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을 가진 우리나라의 '중외에 베풀어도 이뤄지지 않는' 일본정신의 절대성에 전 생명을 바치며 체의(締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제인 내선일체 문제로 들어가 보자.

기번스(H.A.Gibbons)가 그의 저서 『세계정치가 입문』에 한 바와 같이 중국인은 장차 일본과 협동함으로써 그 독립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도 2천 3백만 민중은 대화민족(大和民族) 한민족(漢民族)과 같은 조선민족의 지위를 가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나는 반도민중은 조선민족주의를 청산하고 세계성을 가진 일본 국민주의, 일본 민족주의에 합일, 융화함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미 민족주의를 청산하였으니까 정치적 독립과 무관계인 민족성은 고수하여도 관계없지 아니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언어, 풍습의 존재가 반국가적이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온돌이나 조선어나 김치에 아무 죄도 없다. 조선 의복을 입고도 국가에 충성을 다 할 수 있다. 김씨가 가네꼬(金子)씨로 현(玄)이 아마노(天野)로 변하지 아니하여도 충군애국의 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협화적(漢民族) 협동적 연합융화적 입장이다. 우인적(友人的) 입장이다.

우리들은 '반도인'<sup>138)</sup> 혹은 일본 국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보 나아가 동양평화 인류복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세계적 일본 국민이다. 반도인이 일본 국민인 이상 다만 국가에 대한 공민적 충성만으로서만 만사가 끝났다면 그것은 추상적 개념적 형식적 의무적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7천만의 일본인과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적 본능적 생명적 충성이 생기기 곤란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슬람교도의 인도병대가 영국의 군대로서 프랑스에 도착하였으나 언어가 통하지 못함으로 곤란이 많다는 외국 뉴스가 있다. 내선(內鮮)<sup>139)</sup>출신의 병대가 인도인영국병(英印兵) 같은 사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반도의 꽃인 지원병들은 조선어를 망각하도록 '국어'<sup>140)</sup>를 사용하게 되고, 일상생활 예의까지 일본화하고 있다. 지원병에 또 일본에서 교육받은 반도동포의 자제들에게 가능한 상태는 반도 2천 3백만 민중에게도 응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접근으로 우리들은 내선인(內鮮人)은 서로 애착심이 생겨서 동포 감정이 발생하고 이 친근 감정으로부터 애국심은 보국(報國), 순국, 충군의 사상으로 발전하고야 만다. 황실중심의 일본의 국가를 이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체득, 실천하려면 내선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A란 일본인도 황군중심 사상하에 생활하고 B란 반도인도 황도선양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AB양인은 동일국민이며 동포이며 한민족이며 일가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이다. 성씨제도가 7천만의 현행제

138) 조선인.

139) 일본과 조선

140) 일본어.

도와 2천 3백만의 그것이 다르다면, 그런 외형적 이유로 동포감정이 희석해지기 쉬운 것이다. 일본의 역사에는 일정한 우수한 강력한 민족과 그와 인종적 풍토적으로 친근한 소수민족이 일체가 되어버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혼혈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천 3백만과 7천만의 양 민족이 일민족-세계에 가장 우수한 민족-을 창성한다는 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라고 믿는다(수백 년 혹은 천년의 시일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신은 모든 백성을 한 피로 만드신지라'는 말이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신 중심의 일대 가족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증거는 없다. 인류는 다시 신을 찾아 귀일한다고 나는 단순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다. 먼저 내선이 동혈(同血),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내선 1억 동포가 중국 4억 형제와 동포가족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 2. 총후(銃後) 반도 청년의 임무

금후의 반도청년은 내선일체라는 최고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나간다면 몰락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외문제로서의 신동아건설, 즉 흥아유신(興亞維新)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위하여는 국내를 정비하고 국민이 총친화(總親和)하고 일대가족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신중국의 건설과 동시에 장개석 등의 적리적적(敵利敵的) 제3국과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또는 2천 3백만의 희망과 운명은 순진무오(純眞無汚)한 용맹한 무사의 청년을 대망(待望)한다.

그러나 공상가가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현실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을 요구한다. 총후의 청년은 지원병으로, 대학의과 의전졸업생은 군의로, 젊은 여자는 백의의 천사로 더욱 진출할 의무가 있다. 학창(學窓)이나 사회나 관청에 있는 청년은 더욱 인격을 수련하고 기능을 연마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국민으로서 장래에 비약하려면 현재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란 아직도 발육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반도청년을 재훈련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청년훈련소 청년단을 증설하고 소중학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정신총동원연맹강화를 하려고 한다. 사변 후에 생긴 정동연맹은 아직도 지식계급의 열광적 지지는 없으나(그러나 조선문인협회도 여기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농진운동(農振運動)<sup>141)</sup> 혹은 방공운동(防共運動)과 함께 조선민중의 향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들은 혹은 애국반원으로 혹은 정동(精動)<sup>142)</sup> 촉진대원으로 힘껏 활약하여 반도의 정신적 무장에 물샐 틈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그리고 시국관계의 단체에 가입하여 가지고 단체훈련을 꼭 받을 것은 물론이다.

일본에도 당국을 비판하는 지식인이나 잡지가 있지 아니한가 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가 있으나 일본인 지식계급은 아무리 비판적이지만 그 육체는 국가민족에 밀착불리(密着不離)하다. 우리들은 우선 개념적으로 일본정신을 운운할 뿐인 까닭에 일본인보다도 더욱 국가주의, 일본 민족주의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실천에 매진하자.

또 우리들은 과거의 조선(祖先)의 태타(怠惰)<sup>143)</sup>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

141) 농촌진흥운동을 뜻함.

14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준말.

적으로나 빈곤하지만 그것을 환경이나 제도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우리들이(필자 역시 실패자의 한 사람) 길을 잘못 들은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을 비상시 상시를 물론하고 철저히 인식하자. 총후에는 더욱 그 자각이 필요하다.

국가총력전체제하에 있는 우리들! 총력전은 무력전이며 경제전이며 사상전이다. 청년은 국가총력전의 제1선에 서 있다. 은진산업자(殷賑產業者), 광산경기에 취한 자들이 시국인식을 못하고 주지육림(酒池肉林)에서 도취함을 볼 때 청년의 의분은 타오를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친척이라면 충고하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근로보국, 생업보국, 통제경제에 협력, 사회봉사, 소비절약(금주, 금연 또는 절주, 절연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정신연구 체득 등으로 정신적 압력을 주어 비국책적 행동의 절멸을 기(期)하자. 매일 1일의 애국일에 청년들의 용장(勇壯)한 단체행동으로 모피(毛皮) 숭배광(崇拜狂)의 유한마담, 작소형(雀巢型)<sup>144</sup> 전발(電髮)<sup>145</sup>의 허영낭(虛榮娘)들을 안색(顔色)없게 하라.

반도의 청년제군! 백만의 청년이 아직도 대륙에서 생명을 내걸고 폐하를 위하여 내선 1억 동포를 위하여 신동아 신세계 창조를 위하여 싸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들이 취생몽사(醉生夢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원망할 것인가. 청년 제 형매(兄妹)! 일대 용맹심을 내가지고 분기할 때는 지금이다. 그렇다 기원 2600년을 맞이한 일출지국(日出之國)의 국민인 것을 자랑하면서.

〈출전 : 玄永燮, 「內鮮一體와 銃後青年의 任務」, 『朝光』 第6卷 5號, 1940년 5월, 190~194쪽〉

## 7) 동아연맹론의 대두와 내선일체운동과의 관련

천야도부(天野道夫)

### 동아연맹론의 출발

4월 29일 천장절 축일(天長節 祝日)에 지나파견군 총참모장 이타가키(板垣)장군의 성명 “파견군장병에게 고함”이란 것이 전선(前線) 총후국민의 다대한 감격리에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고노에(近衛)성명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평자(評者)의 일치한 말이다. 서구, 특히 19세기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정복의 형태를 일본이 지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고노에성명의 골자이다. 영토할양이 없고 배상청구가 없는 전쟁, 즉 명백한 도의를 위한 성전을 일본은 감위(敢爲)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사이토(齋藤) 전(前) 대의사(代議士)는 반대하다가 몰락의 비운을 맞본 것이다. 이번 이타가키성명은 고노에성명의 재확인이며 그 전개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단계의 지나사변 즉, 신중국정부의 성립후의 현실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말한 것이 이타가키성명이다.

이타가키성명은 지나사변이 동양인의 동양에 대한 자각의 결여와 구미, 소련의 침략적 책동으로 말

143) 몹시 게으름.

144) 참새집 모양.

145) 전발(電髮) : 전기로 머리를 지지는 일. 또는 지진 머리.



미암아 발생한 것이요, 교전대상은 항일정권의 미망타파이며, 구미제국(歐米諸國)의 대일적성(對日敵性)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사면해결의 근본관념은 팔굉일우의 이상인 만방협화(萬邦協和)에 있고 동양의 신질서는 지나의 통일강화를 기대하여 동양연맹을 결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 파견군장병은 참된 일본인이 되어서 도의를 실천하고 경신애(敬信愛)로써 양민족(兩民族)을 영구히 결합하고 불량방인(不良邦人)을 계식천선(戒飾遷善)시키고 지나인의 전통과 습속을 존중하여 정당한 3국인에 대하여는 관용하고 국내의 물질만능의 공리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이타가키성명의 골자다.

지금까지 동아연맹론은 민간단체와 개인의 언론에 불과하였으나 이 이타가키성명에 의하여 이 동아연맹론이 한개의 국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연맹론이 현실의 정치에 응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론(試論)이 있었다. 1938년 3월에는 이토(伊東六十次郎)씨의 『동아연맹결성론』(동아사상전연구회 발행), 1938년 말에는 미야자키(宮崎正義)씨의 『동아연맹론』(개조사 간(刊)), 1939년 8월에는 『동아연맹건설강령』(동아연맹협회 발행), 동년 10월에는 『동아연맹』(동아연맹협회의 기관지)이 발행되었다. 금년 4월에는 나카야마(中山優)씨의 『동아연맹의 길』이 나왔다. 나는 이상의 논술의 주장과 동아연맹론의 현실과 아울러 조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술(述)하고자 한다.

## 2. 동아연맹론의 내용

1933년 3월 만주국 협화회가 “만주건국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아전국에 파급하여 동아연맹결성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고 협화회이론의 행동적 표현자라고 할 이타가키, 이시하라(石原) 양 중장은 동아연맹의 결성은 제국(帝國)의 유일한 국책이라고 항상 주장하며 실천하였고 미야자키(宮崎正義), 키무라(木村武雄), 나카야마(中山優) □□ 씨들은 실천을 이론화한 사람들이다. 동아연맹의 정치적 성격은 일·만·지 3국의 일반제휴, 나아가 선린우호(善隣友好), 방공(防共)공동방위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일체화를 말한다.

선린우호는 독립국가의 연합체를 말한다. 그런데 동아연맹은 공통목적을 위하여 협동하지만 칙(則) 외교에는 공동태도를 취하나 내정에 있어서는 각 국가, 민족의 개성의 존중, 전통의 문화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방위를 위하여는 통수(統帥)의 일원화가 문제가 되고 일본이 지도자가 되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일·만·지 3국의 경제도 중공업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었다. 국가 간에 착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 계획경제의 중심은 일본이지만 차별적 민족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인도에 중공업을 발달시키려고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평공업(平工業), 농업에 전념시켜서 인도민중을 착취하였으나 일본은 만주국에 중공업을 발달시켜서 평등의 경제생활을 도모한다. 『동아연맹건설강령』에 의하면 만주국의 일본인의 보수(報酬)의 차별이 있는 것은 일본인의 생활정도가 넓은 까닭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피요, 진정한 민족협화를 위하여는 불가함으로 하일(何日)에든가 보수의 평등화를 기할 것이라 한다(그 책, 63~64쪽 참조).

동아연맹이 실현되려면 일본황국은 동아연맹의 국방을 담임하고 경제건설을 지도하기 위하여 쇼와유신을 단행해야 한다. 일본의 국내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즉, 소화유신을 단행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적 체제가 동아연맹 현실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특히 구미, 소련은 동아연맹의 실현을 방해

함으로 일본은 강력한 군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일본국민의 생활정도는 저하시켜야만 한다. 국가총력전적 체제를 독일과 같이 수립해야만 함으로 국민교육을 개조해야 한다.

만주국은 동아연맹 각국 결합의 정신적 핵심이 되는 까닭에 협화사상의 철저, 통제경제의 강화, 보수의 평등화에 의하여 독립을 완성하여야 하고, 중화민국도 연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주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외국정치적 권익을 철회하고 일본과 선린우교를 지속하고 경제제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 동아연맹 실현에 있어서는 일본내의 유신은 연맹성립의 일 필순조건이다. 잡지 『동아연맹』에 교육론, 농업론, 광업론 등이 발표되지만 소화유신의 실천은 금후의 문제다.

일·만·지 삼국의 동아연맹에는 ‘타이국’이나 필리핀(독립한 후), 인도, 이란국 등의 동아제국(東亞諸國)이 자유로 가맹할 수 있다. 이 연맹이 완성되면 구미제국(歐米諸國)과 일대결전이 있으리라고 이 시하라(石原)중장은 말하고 있다. 그 후에 팔굉일우 즉 만방협화의 세계가 온다고 말한다. 인류 최후의 결전론은 동아연맹론자 간에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맹론자가 최후전(最後戰)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이 동아연맹론의 간략한 내용이다.

### 3.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연맹론

미키 키요시(三木清),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신메이 마사미치(新明正道), 카다 테즈지(加田哲二)씨 등의 평론가에 의하여 동아협동체론이 고노에성명을 전후하여 발표되었다. 동아협동체론은 논단에서 그 자체(姿體)를 숨겼으나 최근 동아연맹론의 대두와 함께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대륙』 6월호, 신메이 마사미치(新明正道)씨의 「동아협동체와 국민재편성」 참조). 일본의 혁신론자 중에는 협동이론을 자유주의라고 배격한 자도 있지만 연맹론자들은 협동체론자와 제휴하려고 한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差違)는 어디 있느냐하면 협동체론은 서양의 구미연방론자, 특히 H.G 웰스와 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듯 싶다. 동아연맹자 중에는 불교와 역경(易經), 시경(詩經) 등의 동양사상에 출발한 사람이 많다. 가령 이토(伊東六十次郎) 씨는 “서해동봉개시불자(西海同朋皆是佛子) 일척서해홍의류포(一尺西海弘宜流布)”의 사상은 『고사기(古事記)』의 ‘무스비’사상, 동양의 왕도사상을 근거로 하여 출발한다고 하고 『왕도문화』(일부 동아연맹론자의 기관지)는 일련주의(日蓮主義) 즉, 법화경철리(法華經哲理)의 현대적 일본적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론(余論)이나 경성의 녹기연맹은 과거 일련주의를 신봉하였고 현재도 일본의 일련주의자와 연락함으로 동아연맹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동아연맹론을 조선에 적용하는 일은 없고 현재 내선일체론을 지지하고 있다. 여하간 동아연맹론자가 다 그런것은 아니나 동양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협동론자들은 서구의 근대철학, 근대사회학, 근대정치학에 조예가 깊다. 그만큼 협동체론과 서구의 연맹론(W.D Currig ; The Case For Federac Union 참조) 간에는 유사점이 많다. 그런 까닭에 협동론자와 연맹론자가 영원히 협조할 수 있을것인가는 의문이다.

### 4. 동아연맹론과 조선, 특히 내선일체운동과의 관련

금년도 미나미 총독 연두사에 일한합방이란 말이 있다. 일한합방은 일본의 한국병합이나 합방적 의

식에서 출발한 것은 이용구(李容九) 등의 일진회 운동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내각 정보부 발행의 『주보(週報)』에 대장성의 관리가 식민지 조선이라고 썼으나(3월 발행) 척식성(拓殖省)이라 할 것이 척무성(拓務省)이 되고 식민지가 외지로 개명된 것, 미나미 총독의 조선식민지시(視) 반대론 등의 사실에 있어서 조선은 일본의 일부분이며 장차 내지와 같은 입장에 있을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게 된 것이다. 조선통치가 인도통치와 다른 것도 한 객관적 사실이다. 만일 서구 제국주의와 동일한 입장에서 일본이 조선을 취급하였다면 지식층의 대량적 전향이나 지원병제도, 창씨제도의 실시가 없었을 것이다. 일한합방은 평등의 입장에서 합병한 것이 아니지만 조선인이 평등으로 일본국민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이상, 동아연맹의 이상과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아연맹론은 일본과 조선의 양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조선민족의 전통습관의 존중을 말하나 문서상으로는 일선(日鮮) 양 민족(협화회 발표의 문헌)이라고 하고 동아연맹론을 달성하는 단계에는 조선, 대만의 통치개선을 말할 따름이다. 조선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술한 동아연맹의 제창자는 없지만 필자와 같은 급진적 내선일체론은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상상할 수가 있다. 현실의 조선에 있어서는 동아연맹론자의 조선론이 자유로 발표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조선의 지식계급 중에는 이 동아연맹에 찬성하여 노력하는 이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동아연맹의 결성, 일·만·지 3국의 연맹에는 대찬성이요, 그 결성에 간접으로나 원조하려고 하지만, 연맹론을 조선에 적용하여 일선협화(日鮮協和),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생각하는 것은 반동에 불과하다고 믿는 바이다.

일선융화의 시대는 통과되었다고 말하면 그 말에는 급진적 이상적 경향이 있겠지만 내선일체는 다만 위정자의 정책으로만 생각하면 아니된다. 인류의 평화를 목적하는 양심의 소유자가 모든 민족적 편견을 버리고 내선일체로 일선 양 민족이 신일본민족을 창생하고 신일본국가를 건설하리라는 의욕을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자발적 내선일체론을 제창한 사람이나 내선일체를 무의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암취인(闇取引)이란 말이 있다. 언문(諺文)의 신문지도 그 글자를 그대로 쓴다. 창씨(創氏)는 현금(現今)의 명칭일체(名稱一體)이지만 합방후에 조선여자의 이름에 정자(貞子)나 경자(敬子)이니하는 식의 명명을 조선민중은 자유의 입장에서 채택한 사실이 있다. 내지에 가있는 조선인의 풍속습관이 내지식으로 변화하는 사실에는 위정자의 정책만이 아니다. 내지에는 협화회라 하여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여 나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선 양 민중은 혼연일체하고 만다. 내선일체는 점점 사실화하고 만다. 도쿄에 재주(在住)하는 다수의 조선인 자동차 운전수는 내지인과 결혼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예와 2,300만 민중의 입장과는 상위(相違)하지만 사실은 적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매일매일 내선일체의 사실은 격증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공상에서 출발한 내선일체론이라면 정치적 조건 여하도 좌우되지만 사실에 입각한 내선일체는 그 존재이유를 절대로 탈취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약 내지에 동아연맹론이 활발히 발전하여 국책이 된다면 내선일체운동은 다소 변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선일체의 완성, 내선인의 무차별평등으로 천황계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욕하는 내선민중의 혈루(血淚)의 사실만은 여하한 정치적 변동이 있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창씨(創氏)같은 것은 내선일체의 일소부분에 불과하다. 내선일체는 내선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일체(一切)에 있어서 일체(一體)가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궁극에는 수입도 성실·능력으로 인

하여 평등하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들은 일본국민이 되는 것으로서 동아연맹 완성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지인과 같은 충성과 능력을 가짐으로 일본국가를 강화하고 일본국내 체제를 정비하여 일본을 세계제일의 이상향으로 창성함에 기여·공헌하여 일본국민의 당위와 복지, 내지인과 같이 행복과 의무도 최승희(崔承禧)의 무용과 같이 일본화하며 세계화하게 된다.

동아연맹론은 일·만·지에만 적용하자. 그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러나 조선의 진로는 절대로 일선연방도 아니며 내선연맹도 아니며 다만 내선일체의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1940년 5월 26일)

〈출전 : 天野道夫, 「東亞聯盟論의 擡頭와 內鮮一體運動과의 關聯」, 『朝光』 第6卷 7號  
1940년 7월, 212~216쪽〉

## Ⅱ. 일제의 침략전쟁 지지·선전



## 1. 계광순(桂光淳)

### 1) 신체제와 청년

‘지나사변(支那事變)’<sup>1)</sup>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초의 불확대 방침은 철저한 응징 방침으로 변했고, 나아가 전황의 진전에 따라 장기전 및 장기건설을 목표로 내외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는데, 지난 9월 일본·독일·이탈리아 동맹조약의 성립과 함께 동양의 신질서 건설에서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 세계 신질서 건설에 협력하게 되었다. 참으로 건국 이래의 국위의 약진적 발전이다.

이 역사적 성업(聖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수많은 난관을 각오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준비는 어떨까?

전쟁의 승패는 우선 첫째로 국민정신의 긴장 여하에 달려 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라 해도 군대를 배양하는 국민의 정신이 이완되어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장기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나사변이 일본 민족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정신에 기초하여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여 동아 민족들의 공존공영을 ……(판독불가)…… 세계 항구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바친 것을 생각할 때,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어찌 한가로이 쉴 수 있겠는가. 이런 시국을 맞이하여 개인주의적인 자유와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책에 반하는 일본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번 대정익찬(大政翼贊) 운동을 주장하자 정당을 비롯한 기타 단체들이 오랜 전통과 감정 등을 버리고 여기에 모두 통합되었다.

다음으로 전쟁은 막대한 물자의 소모를 요하는 것이다. 특히 근대전은 그 나라의 경제력·생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변의 진전과 함께 각종 중요물자의 생산력을 확충하고 군수자재의 공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장기전 및 뒤따르는 장기건설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국의 생산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전쟁에 수반되는 방대하고 긴급한 수요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신속히 산업체제의 재편성을 실행해 자재·기술·노동력 등 일체의 생산요소를 중점주의에 의해 통제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불급불요의 산업은 폐지하고 군수 또는 국민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물자의 생산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이른바 평화산업들 일부에는 실업자를 발생시키게 되지만,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또 일반 민간수요의 압축에 따른 민중의 물질상의 부자유와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 크고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사변 이전부터 점차 자본주의 경제의 수정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묵하 자유주의 경제에서 전체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과도기적 고민이 있고 마찰이 있으며 고통이 있다. 국민 사상과 국가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데, 좀 더 협의의 국방의 의미에서도 국민의 총력 발휘가 전승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모든 부문에

---

1) 중일전쟁.

서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개인적 이해를 초월해서 일체의 곤란과 어려움을 인내하여 신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게 마련이다. 전통의 힘은 타성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래의 태세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노인·장년층은 어쩔거나 뼈가 굳어져 있고 혈맥도 경화하게 마련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노인·장년층은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성계급에게 새롭고 격렬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시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 즉 종래의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의해 교육을 받고 영리주의적 관념으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전체주의적 공익 우선적 봉공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편달이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의 시국적 대임무가 있다.

청년은 새로운 이상에 살고 정의와 국가적 요청 앞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매진할 만큼의 용기가 있고 실행력이 있다. 시국하에서 신도실천(臣道實踐)·멸사봉공(滅私奉公)을 중심으로 한 신체제의 실현에 있어서 청년층의 일대 분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청년은 신체제의 기둥이자 추진력이다. 쇼와유신(昭和維新)의 성패는 신체제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신체제의 확립은 청년의 발분·노력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지나사변은 일본 민족의 장래를 위해 또 동양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 언젠가는 일으켜야 할 숙명적 사업이었다. 지나사변의 수행은 우리 자손들의 영구번영을 위해 우리가 떠맡아야 할 임무의 수행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짊어진 청년제군은 쇼와성업(昭和聖業)에 익찬(翼贊)하는 감격을 가슴에 품으면서 총력운동의 추진력 증추로서 돌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필자는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출전 : 桂瑠淳, 「新體制と青年」, 『内鮮一體』, 内鮮一體實踐社, 1940년 12월, 14~16쪽〉

## 2. 고승제(高承濟)

### 1) 신문화의 창조

우리들은 그 자체로서의 동양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양의 발견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양과 대립된 서양자체의 몰락과 연관되어서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서양의 몰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종래의 무자각한 “서양 즉 세계” 혹은 “서양사 즉 역사”라는 소위 세계일원론의 몰락이다.

이제 우리들은 문화의 다원성을 입론함으로써 이 대담지극(大膽至極)한 세계사론을 검토하기로 하자. 문화는 원래 다원적인 것이다. 문화의 양식, 문화의 유형의 존재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처



럼 양식상 서로 상이한 문화의 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구상에는 수다(數多)한 역사적 세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의 유력한 증거이다. 우리들은 진실한 세계사를 고찰하려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지구상의 인류 세계에는 수많은 세계사 그리고 역사적 세계가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실이야말로 동양세계는 결코 “세계사의 전제”가 아니고 동양에는 동양자체의 완결된 세계사가 존재해 있음을 용변으로 말하는 것이다.

동양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발견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동양문화의 창조이다. 종래에 있어서 동양문화에는 두 대립적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디까지나 서양문화를 기준으로 삼고 동양문화를 논하고 결국 동양문화는 한낱 봉건문화에 지내지 않는다고 논단하는 입장. 다른 것은 서양문화의 몰락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서양과 동양을 기계적으로 대립시켜 독립적으로 동양문화의 부활을 희구(希求)하는 입장이다. 다음은 우리들의 입장을 말할 순번이다. 과연 서양문화는 전 역사과정을 통해서 각기 중심적인 지도원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체가 통일되고 일체화되었다. 동양문화에는 명백히 이와 동일한 의미의 통일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양의 새로운 의의를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특수한 의미의 동양문화의 통일성을 발견하게끔 격려(激勵)의 재료가기는 하나 결코 실망의 재료는 아니다.

그러므로 동양문화의 재반성(再反省)이 요청된 진실한 근거는 소위 세계문화의 서양적 제한을 타파하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는 서로 종합함으로써 비로소 진실한 의미의 신문화가 창조되는 것이다. 서양문화는 동양문화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계적 규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소위 서양문화의 몰락이라 해도 그것은 서양문화의 어떤 유평에 또는 어떤 일면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결코 서양문화의 전면적 부정은 아니다. 또 동양문화의 재반성이라 해도 그것은 결코 동양문화 자체의 부활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때까지의 세계문화의 서양적 한계를 타파하고 그 대신 동양적 한계를 설정한대도 그것은 그다지 중대한 의의를 갖지 못한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균등화시키고 양자의 개성을 인용(認容)하면서 이들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세계문화를 수립하는 데에 동양문화의 재반성의 근본의의가 있고 또 서양문화의 몰락을 적극적으로 타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경계할 점은 동서양 양문화의 종합 혹은 조화라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종합 조화의 매개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종래의 수다한 동서의 종합 조화를 목표로 한 문화론들이 단순히 이론에 있어서만 시종(始終)한 원인은 그들이 기술적 기계적 종합에만 분주했던 반면 종합 조화의 기저적인 매개적 토대를 망각했다는 데 그 원인이 숨어있다. 그러면 그 매개적 토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문화이다. 그러므로 신문화는 국민문화와 상호작용을 계속함으로써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 또 신문화를 논하는 우리들의 입장이 진실하게 주체성의 문제에 충실한 창조적 세계사의 입장이라면 그러함으로써 신문화의 창조도 역사적 현실적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

국민문화를 떠난 동양문화 또는 동양문화를 무시하는 국민문화, 그다음 세계문화의 장래를 고려에 두지 않는 동양문화는 금일의 실정에 비취볼 때 결코 완전한 문화이론이라고 수궁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위에 말한 세 가지 문화의 유기적 종합체로서의 신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들 자신도 동양세계의 계승자로서 서양세계에 대하여 비판자의 자격을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면 여상(如上)의 제 요구에 조용하게끔 신문화는 어떤 구성성격을 갖추어야 할까.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먼저 우리들은 서양문화에 대하여 동양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또 동서문화의 유기적 종합 조화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문화의 생활화를 주장하고 싶다.

원래 문화란 실생활에서 추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생활과 밀접하게 종합하므로써 그 사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의 문화의 문제가 부유화(浮遊華)처럼 보여진 것은 문화가 실생활이라는 본문과는 다른 부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문화란 결코 종래의 대다수의 논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실생활과 절연(絶緣)된 추상적 이념이어서는 못쓴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현실생활에서 생기게 되는 각종 문제에 참여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이란 완전 혹은 불완전의 수다한 형태에 있어서의 정신과 물질의 종합통일태(綜合統一態)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동양문화는 정신문화방면에 있어서는 풍요했으나 물질문화방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빈곤했다는 반성에 충실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그 근원방책으로서도 문화의 실생활화를 주장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관념을 그 자체로서 성립시키고 그 목적을 관념 그것의 발전에 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성에 실생활의 목적에 일체의 관념을 종속시키는 다시 말하면 관념을 생활화하는 태도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위한 문화라는 소위 문화주의는 우리들이 배격할 바이다. 현실생활에의 과도한 강조는 문화생명의 영원성과 일견 모순된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의 새로운 창조란 미존(未存)의 창조인 동시에 기존(既存)의 창조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대한 미래 모험의 작용인 동시에 그 생성에 있어서의 발견이기도 하다. 현실은 이런 따위의 미래와 과거의 상호매개 장면으로서 현실적 통일체를 형성한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서 현실의 창조에 협력할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자기형성의 계기로서 현존하는 것이다.

여하간 신문화는 다사다단한 현실생활에 그와 평등한 자격에 있어서 참여하여 그곳에서 생기하는 각종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또 정신과 기술의 양면에 있어서 현대인의 생활을 그 근저에서부터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다음 우리들은 서양문화의 강렬한 분잡적(分雜的) 경향을 구출하는 그 동양문화의 입장에서 국민 문화를 그 이상적 방향으로 규정하는 의미에서 문화의 공공성 혹은 공동성을 주장하고 싶다. 이 주장에 있어서 먼저 문제되는 것은 문화의 지역적 봉쇄성(封閉性)이다. 종래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어촌과의 대립으로 이 문제는 수다한 도수(度數)<sup>2)</sup>에 있어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공통성격은 지역 간의 문화 전파문제였으나 우리들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다른 문제이다. 즉 광범한 지역에 공통한 보편적 문화와 각 협소지역의 특수적 문화 간에 일어나는 비참한 배리(背離)이다. 우리들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원래 공통 보편적 문화란 개별자의 구체적 특수성에 따라 그것을 특수화하는 보편자이다. 그러므로 신문화는 부분문화의 특수형태와 연관 조화되어야 하고 특수문화의 개성을 무시하던가 이예다 억압을 가해서는 못쓴다. 그 다음에는 사회구성층 간 또 성적 차별 간의 문화의 봉쇄성이다.

---

2) 거듭하는 횡수.

이 문제에 관해서 삼목청(三木淸) 씨는 “당연히 공공적으로 향수(享受)되어야 할 문화재가 개인 혹은 사회의 일부층에게서 봉개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의 중대한 목표의 하나는 이 봉개성의 타파”라고 했다. 과연 수긍할 만한 착안이다. 생각할 때 문화재의 향수가 문화재의 산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다한 일반층을 떠나서 특수층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문화의 공동체 성립에 크나큰 장애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문화는 일반층의 문화공동체에의 참여를 조지(阻止)<sup>3)</sup>하는 조건, 즉 접촉교섭의 차단을 타파하고 상호 간의 행위양식 생활내용의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문화 원래의 공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 다음 더욱 주의할 점은 사회성원 간 또 성적차별 간의 문화적 고하차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원 상호 간 또 성적차별 간에는 지식적으로는 물론, 감정 의욕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질적 역사적 차이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잡다성 혼효성(混濻性)은 이 차이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다. 그러면 이 잡다성을 여하히 통일할 것인가. 이것이 신문화의 마지막 그리고 긴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신문화는 공통적 보편자로서 각 층의 개방성을 발동시키므로 고하 차별의 접근 공동화를 도모해야 한다.

(12월 1일)

〈출전 : 高承濟, 『新文化의 創造』, 『人文評論』, 1941년 2월, 24~27쪽〉

## 2) 대동아문화의 창조

대동아 건설은 오늘날 국가 최대의 긴급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의 정책이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 동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은 무엇보다 먼저 총력전이라는 현실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 가운데 우리의 당면과제인 대동아 문화의 창조는 현 실정에서 판단하건대 가장 뒤쳐진 느낌이 없지 않다.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들의 관념에 있어서 동아공영권 건설의 목표를 자원획득에 국한시켜 이를 위한 긴요하고 직접적인 과제인 정치 내지 경제에만 중요성을 인정하고 문화정책 따위는 비교적 중요성이 가볍다고 단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오히려 문화정책은 정치 내지 경제 건설의 완성 이후로 연기해도 된다는 낙관을 하고 있다. 둘째로 문화정책 자체의 문제로서 대체로 문화 자체의 개념이 불명확한 탓에 정치 내지 경제 건설은 가령 물자교류·통화 금융 공작 및 노동정책 등과 같이 정책상의 구체적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문화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때문에 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필연적이고 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총력전의 기본적인 성격이 한편으로는 전쟁,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이라는 점에 있음은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인데, 이 경우 전쟁과 문화의 관계가 종래와 달리 총력전하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3) 저지(阻止)의 잘못된 말.

하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마치 파괴와 건설이 서로 완전히 배치하는 것처럼, 전쟁과 문화도 서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특히 문화 진영에서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생각은 총력전하의 오늘날에는 역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력전의 기본적 성격은 한편으로는 전쟁,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쟁과 문화의 관계는 글자 그대로 긍정적인 것이며, 나아가 문화는 전쟁에 의해 비로소 자기 재생의 근본 계기를 획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일시성과 문화의 영구성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쟁과 문화는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역시 반성해야 할 사실임은 우리가 그저 총력전의 의의와 본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또 논리적으로 일시성·영구성은 모두 시간 개념인 이상 전쟁과 문화는 하나의 동일한 선을 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총력전의 기본적 성격이야말로 다른 정책의 실시와 동시에 대동아 문화 창조의 방책도 가급적 신속히 확립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동아 건설의 성패여하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이유에 입각해 말하자면, 첫째로 대동아전쟁은 그 유발 원인 및 수행 목적에 있어서 단순한 자원획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대동아의 독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동아의 신질서를 수립해 결국 도의(道義)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성전이라는 점에서 이 전쟁의 문화적 의의를 가장 근본적이자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임은 누구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 정치 내지 경제정책에 비해 문화정책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여러 정책의 상호 긴밀한 관련을 대동아 건설의 요체라고 할 경우 정치 내지 경제정책의 개별적 성공의 계기야말로 문화정책과 관련시켜 시행하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문화정책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원인은 돌이켜보면 문화 자체의 개념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용어 속에는 각종 개념규정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동아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문화를 상식적으로 민족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문화 이해는 예능이 가장 명백하게 전통을 표시하고, 따라서 대동아 문화의 창조의 경우 통일된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동태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능 등에 대표되는 인간의 이성 또는 의식의 발달의 결과이기보다 오히려 인간생활의 전체적인 종합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은 횡적으로 인간적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인 동시에 종적으로 오랜 민족적 생활의 역사, 즉 단순한 전통과는 다른 생활전통에 의해 발생하고 또 고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대동아 건설의 정책들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생활정책을 위한 문화정책은 대동아의 통일 원리를 가장 단적으로 표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방 지역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문화정책을 재반성해 보면, 그들의 문화정책이 일방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제국주의 국가의 목적이 오직 정치 내지 경제상의 이익만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 그것만을 확대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문화정책을 정치 내지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부차

적으로 취급되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적 관념에 의해 일관된 문화정책은 대동아 건설의 공영(共榮) 원리와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대동아 건설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음으로 대동아 건설의 기본 전제가 우선 국방국가의 건설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에서 본다면, 대동아 문화 창조의 기본적 전제는 공영권의 중심인 일본 문화의 재창조이다. 이미 암시한 것처럼, 대동아 문화정책의 목표는 동아의 민족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진정한 연속과 통일을 형성하고 거기에 신문화, 즉 대동아의 신질서에 입각한 새로운 대동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문화의 재창조이며, 따라서 대동아 문화의 창조는 일본 문화의 재창조라는 기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재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일본 문화의 발전 형태를 개략적으로나마 회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 문화는 서구 문화와는 다른 역사적 경과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도 역시 발전 단계에 따라 고대·중세·근대의 각각의 성격이 나타나긴 했으나 각 단계를 통해 민족적 지속성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에서는 그 단계에 따라 문화 성격에 완전히 이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단지 동일 민족 내부의 조직 형태적 변화가 있었을 뿐이고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기본적인 문화적 성격이 일관되게 지속되면서 발전해온 것이다. 따라서 일본 문화의 특징은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이행되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도 결코 과거의 형태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또는 다소 새로운 형태로 바꾸면서 지속시켜 다른 한편으로 완전히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내용을 섭취하고 또 창조해간다. 이는 단위 문화에 대해서 거론할 경우, 전통으로의 복귀와 외래문화의 섭취를 통한 혁신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화 발전의 일반 형태이며, 전통을 존중하면서 신문화를 창조한다는 데에 진정한 문화의 발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본 문화의 이러한 특징이 문화 자체에 국한시켜 볼 경우에도 중추 문화로서 얼마나 탄력성이 큰 것임을 보여주는 귀중한 암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내적 문화정책의 주요문제인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대동아 문화 창조의 전제로서의 중심적인 일본 문화의 재창조의 경우 문화개념의 양대 구성요소인 특수성과 보편성의 균형관계가 중대한 문제가 된다. 즉 문화의 특수성은 단위 지역 문화의 의의이며, 동시에 그 존재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의의는 문화의 보편성으로서 실현되고 보편성으로서 그 존재의 권리를 확보하며, 따라서 문화의 특수성 속에 그 보편성이 살아 숨 쉬게 된다. 그럴 경우 일본 문화를 재창조하는 방향은 한편으로는 그 특수성의 고양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편성의 고양이어야 한다. 환언하면 그 방향은 동아 각 지역의 문화가 섭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특수성을 보편화를 향한 방향으로 고양시키고, 동시에 그것과의 관련에서 중추 문화의 특수성을 섭취함으로써 각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보편화로 향한 방향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아 각 지역의 문화를 섭취해 특수화를 향한 방향으로 중추 문화의 보편성을 고양시키고, 그 보편성을 동이라는 광역 규모로까지 발전시킬 경우 문화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그 보편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또 섭취 대상으로서의 각 지역 문화의 보편성은 지역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각 지역 문화의 보편성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말하자면, 첫째로 대동아 건설의 전개와 더불어 공영권에 들어온 남방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섭취 태도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동아공영권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구·문화·경제를 비롯한 각종 요청에서 보건대 중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민족(漢民族)이 그 문화 수준에 있어서 수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대체로 한민족과의 제휴 내지 그 지도가 대동아 건설의 성패를 고도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남방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를 비판하도록 하는 재료가 아니라 단지 위의 원리에 따라 특히 남방 문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구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의 관념에 있어서 동아 각 지역이 동종동문권(同種同文圈)이라며 과대하게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률적인 문화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며, 또 이를 그 성공에 관한 낙관 재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책상의 일종의 태만이고 또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동아 각 지역의 종교문화 측면에 입각해 살펴보면, 동아 각 지역, 특히 남방 민족들 사이에 종래 존재하는 종교는 미개문화의 원시종교인데, 다른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주함으로써 각 민족들의 문화와 함께 종교가 이식되었다. 오늘날의 실상에서 입각해 보자면 동아 사회는 다양한 종교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다가 이들 종교문화는 긴밀히 다른 문화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 각 지역에는 우선 세계적 종교라 불리는 불교·기독교·이슬람교라는 3대 종교가 각각 유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편 유교·도교·신도(神道) 등의 이른바 민족종교가 깊숙이 뿌리는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애니미즘·샤머니즘 등을 총괄한 이른바 '자연종교'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래 세계적 통일적 종교는 보편주의이고 전 인류의 구원을 그 영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이른바 세계종교라 하더라도 어떤 민족에게 섭취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민족에 맞게 민족화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일반 형식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는 세계적 종교의 민족적 순응이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종교도 원래는 민족종교의 발전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종교는 각각 시조를 갖고 있으나 그 발전은 각 민족과의 충분한 친화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은 무엇보다 종교사의 결론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른바 세계적 종교는 적어도 현실의 종교조직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주의를 과시할 수 없으며, 이런 실상은 동아의 각 종교에서 한층 더 현저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아적 종교는 혼성주의를 그 특징으로 삼는 것이며, 각 종교들 중에는 동아적 성격이 공통 특징으로서 저변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동아 건설의 원리에 입각한 동아 각 지역의 종교문화를 통일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동아권의 잡다하게 민족화 된 종교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각 민족은 오랫동안 전통화된 종교에 깊은 신앙심은 없어도 관행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 정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객체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당면 주요과제라는 점에서, 취해야 할 종교정책은 우선 한편으로 각 민족의 성격과 관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전제 역시 일본 종교의 강력한 재편성이라는 점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미래에 창조되어야 할 대동아 문화는 어디에 그 방향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떠한 기본적 성격을 갖는가를 밝히는 일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공영권 건설의 한 방책으로서 문화정책도 미래에 창조되어야 할 대동아 문화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 성격을 제시하고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영권 건설에 따라 창조되어야 할 대동아 문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문화의 동아시아적 통일이고 또 그것이 과거의 재래 문화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긴급한 과제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각 지역 내에 침략 내지 이입되어 있는 구미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한 총결산이다. 이는 단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종래에 그들의 질곡 아래에 놓여 있던 민족들의 정신적인 해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추 일본 문화의 구미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실증하고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그런데 일본 문화의 역사성, 통일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음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데, 그것은 과거 유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곧바로 동아시아 각 민족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원리에 입각해 문화 방출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 방출에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한 국가의 생명력이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 역력이 발생했을 때의 능동적인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생명력이 쇠진하여 외부로부터 자신의 문화가 탈취되었을 때의 소동적(所動的)인 형태이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형태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조건은 일본 문화의 우월화에 대해 각 지역의 문화가 섭취를 목적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미 암시한 바와 같이 문화 방출의 경우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완전히 무시한 기계적·물리적인 강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방출은 자기완료적인 것이 아니라 그 궁극 목표는 도리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창조된 새로운 성격의 문화를 본국이 다시 섭취해 자신의 문화를 재창조할 때에 제3의 성격을 지닌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는, 신문화의 방향에 대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신문화의 동아시아적 성격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능적 문화는 어디까지나 제2차적인 것이고, 제1차적인 것은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문화이다. 즉 문화의 형태에서 불가결한 것은 일정한 사회에서 보편적 타당성과 규범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의 이러한 특성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관행이나 풍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신문화의 방향을 이러한 생활문화 측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부언하자면, 신문화의 동아시아적 통일이란 동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를 기계적으로 모색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지역 문화에 하나의 단위 문화로서의 자주성을 부여하고, 동아시아적 통일로 가는 방향을 향해 고유문화의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찾고, 보편성에서 특수성을 찾으면서, 그리고 형성과정으로서 방출과 섭취의 상호 관련 작용을 통해 재창조를 도모하는 일이다. 따라서 신문화의 동아시아적 통일이란 각 지역 문화의 총계적·무성격적인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창조되어야 할 신문화의 기본적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의 대동아 건설의 원리에 따르면, 장래에 창조되어야 할 신문화도 건설의 한 부분인 이상 그 기

본적 성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추 일본 문화를 창조의 기초로 삼는 것이어야 함은 명백하다. 동아 각 지역 문화에 대한 일본 문화의 특징은 그 전체 발전 과정을 통해 일관적인 특질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동아공영권의 중추로서의 일본 문화가 신문화 창조의 기저가 되어야 하는 오늘날 일본 문화는 종래와 같이 '일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일본적이라는 데서 직선적으로 발전해서 동아적 성격을 거기에 부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내적 문화정책의 방향으로서의 국민문화의 창조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곧바로 예술이나 종교나 학문 등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 상식인 듯하다. 물론 이러한 것들 속에 문화의 현저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화 형상도 실은 우리 일상생활적인 장(場)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 문화사를 돌이켜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상층계급의 향락을 위해 만들어진 귀족문화가 있었고, 또 그 문화들 중에는 매우 뛰어난 것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그 이후의 역사의 흐름에서 결국 국민 전체로 일반화되었으며, 당초의 문화가치도 여기서 비로소 발휘될 수 있었음은 이 경우 매우 귀중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 문화란 그 본래의 모습에서 보건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고 공동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민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때에는 국민 전체의 공유물이자 공동수단이라는 점이 문화의 주요한 성격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문화의 기초는 예술이든 학문이든 국민 전체의 생활에 입각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문화의 창조에 따른 일본 문화의 동아적 성격 구비는 다른 한편으로 일본 문화 자체의 현 단계에서의 발전 계기이며, 그와 동시에 거기에 동아 건설의 현대사의 성격 변화에 따라 자신을 갱신해야 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즉 신문화의 기본적 성격인 동아적 성격을 창조하고 구현하기 위한 중추 일본 문화에 부여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아 각 지역에서 피아(彼我)의 문화적 실천을 충분히 파악하는 일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에서 전통적 문화를 지지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만약 이 지역을 도외시한다면 대동아 문화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은 매우 명백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동아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에서 어디까지나 중국문화에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대상성을 부여하고, 그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일단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독선주의를 타파하고 대동아 건설의 원리에 입각해 제3의 성격의 대동아 문화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을 우리의 지도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남방 각 지역이 오늘날 문화적 역량이 미약하다고 해서 문화정책 수행이 오히려 조건적으로 쉽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다시 말해 대동아 건설의 요체를 각 정책의 종합 계획적 실시에서 찾는 경우, 또 문화정책을 생활정책과 결부시켜 남방 각 민족으로 하여금 유력한 공영권의 인적 단위로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남방 건설의 궁극 목표로 삼는 경우,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대체로 대동아 건설의 성패의 결정이 급속한 문화정책의 실시에 따른 원주민의 민도의 향상여하에 따라 근본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생활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문화에 부여된 과제로는 앞서 제언한 것처럼, 종래에 각 지역에 침투 내지 이입된 구미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소하는 일이다. 대체로 그곳 문화의 현 상황은 구미문화의 식민지와 같아서 이를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 표피를 제거하지 않는 한, 각 지역의 원주민들이 문화적



으로 자각하는 일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 이로써 각 지역 문화는 한편으로는 그 전통적 문화로 복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각에 이어, 이미 동아시아적 성격을 갖추는 데까지 발전한 일본 문화를 섭취해 이윽고 일본 문화 내지 지역 문화를 향해 그 특수성에 따라 문화 방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의 원주민들의 전통 및 성격을 활용하면서 신문화 창조에 그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그 처한 바를 고려하는 대동아 건설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일 말은, 문화정책에서의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대동아 문화 창조의 기저를 일본 문화에 동아시아적 성격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향을 향한 발전적 재창조에서 찾을 경우, 대동아 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첫 번째 순위에 위치하는 것은 중추 일본 문화의 재창조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 문화의 동아시아적 성격에 대한 전제를 각각의 전통적 문화로의 자발적 복귀가 제2 순위의 과제이다. 그런 다음 각 지역 문화를 일본 문화 재창조 방향을 향해 동아시아적 성격으로 통일하는 것이 제3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대동아 문화의 창조 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최종적이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의 형성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동아 문화 창조의 과제는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인간 형성의 방향을 향해 문화 형성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인간 형성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정책 곧 수단이라는 방정식을 설정하고 각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은 실천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책에는 늘 이론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이론을 진정 이론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앞서 세계관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관의 진리가 그대로 동시에 이론의 진리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먼저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을 진정 정책이게끔 하는 길이다. 그리고 세계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생활상의 의욕이나 평가를 내포하고 인간 형성을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새로운 인간의 형성은 새로운 세계관의 수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관이란 말할 것도 없이 대동아 건설의 이념을 그 기초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응한 인간의 형성도 대동아 건설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동아인의 형성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동아시아공영권의 지도국민으로서의 우리 일본 국민이 대동아에 이를 때까지 각자 자기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전 : 高承濟, 「大東亞文化の創造」, 『國民文學』第3卷 3號, 1943년 3월, 16~24쪽〉

### 3. 김연수(金季洙)

#### 1) 일억 일심 매진

만주국명예총영사(滿洲國名譽總領事) 김연수

일양(一陽)래후 여기에 흥아(興亞)의 서상(瑞祥)이 넘치는 황기(皇紀) 2601년<sup>4)</sup>을 맞이하여 삼가 황실의 번영을 봉대하고 호국의 영령에 대하여 심후한 경조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방가(邦家)를 위하며 동아공영권 확보를 위하여 제일선에서 건투하는 출정황군장사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다. '지나사변'<sup>5)</sup>은 금일로써 벌써 제5년에 들었는데 우리 황국신민(皇國臣民)은 이 의의와 황군성전의 목적을 적확히 재인식하고 전역(戰域)이 무엇임을 불문하고 일억일심 황국 최고의 이상을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하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11월 체결된 일화(日華)기본조약 및 부속의정서, 및 일만화(日滿華) 삼국실천은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일단락을 그음과 함께 본 사변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만화 삼국민은 금후 그 결성을 더욱 굳게 하여 불퇴전의 용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제 세계의 상세(狀勢)는 바른 신질서를 건설하여 영구한 평화를 수립하려는 합리적인 것과 이 □□한 역사적 과정에 역행하여 불공정한 구태를 유지하려는 불합리적인 것과의 2대분야가 대립하게 되었는데 우리 일본제국이 □자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을 체결한 것은 바른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는 제국의 대방침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 제국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무법한 압박에 신음하고 있던 동아의 민족을 해방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 공존공영의 원리를 펴고 동아의 맹주인 우리 일본제국 지도하에 대동아공영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의 조정에 기여하려는 것이어서 제국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신질서건설을 둘러싸고 세계정세의 전개는 지금 새로이 맞는 이해에 있어서 일층 더 유효적절한 동향을 보일 것을 생각하면 신년의 의의 역시 다대함을 깨닫는다. 즉 우리 제국의 장래 □성은 이 신년에서의 거국일치 노력의 대소에 의하여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실천 실로 중대한 바가 있다. 안으로는 인적 물적 총력을 통틀어 고도국방국가 체제의 완성을 갖추며 밖으로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유효적절한 □□의 □□을 강구하여 일억일심 멸사봉공 황□목적의 달성으로 향하여 매진치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출전 : 金季洙 「一億一心 邁進」, 『매일신보』, 1941년 1월 4일〉

4) 1941년.

5) 중일전쟁.